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族譜의 기재양상과 그 의미
- 『大丘徐氏世譜』를 중심으로 -

2020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유 수 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族譜의 기재양상과 그 의미

- 『大丘徐氏世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ation Patterns and
Meanings of the Late of Joseon Dynasty
Genealogical Table
-Focusing on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Daegu Seo Family』 -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유 수 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族譜의 기재양상과 그 의미

- 『大丘徐氏世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ation Patterns and
Meanings of the Late of Joseon Dynasty
Genealogical Table
-Focusing on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Daegu Seo Family』 -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유 수 지

유수지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조선후기 族譜의 기재양상과 그 의미 - 『大丘徐氏世譜』를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유 수 지

대구서씨는 1702년과 1775년에 『大丘徐氏世譜』를 간행하였다. 본 논문은 두 족보에 드러나는 기재양상과 그 특징을 통해 대구서씨에게 있어 족보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족보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리한 가계 기록물이다. 이중 조선후기 족보는 조선전기의 그것에 비해 부계혈연집단의 결속력이 강화된 형태로써 문중의 발달을 나타낸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족보가 어떠한 형태이던, 사족집단의 사회적 권위를 격상 내지 유지 시켜주는 도구였던 점을 토대로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서 대구서씨의 족보를 살펴보았다.

두 족보는 모두 18세기에 간행되었지만 형태나 구성이 달랐다. 최초의 족보인 1702년 대구서씨족보(이하 임오보)는 그 형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 족보의 형태와 달랐으며 1775년 대구서씨족보(이하 을미보)가 일반적인 조선후기 족보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는 존재했어도

동족집단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다. 대구서씨의 수보 목적은 언제나 자신들의 사회적 권위를 드러내고 이를 격상시키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序·跋文 및 凡例를 통해 보이는 수보자들의 의도는 족보의 인원 구성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같은 동족이라고 여겨진 달성서씨는 임오보에서 별보로 실렸다가 이후 본보로 옮겨 실어졌다. 그러면서도 그 기재의 정도는 여전히 달랐다. 또한 을미보에 이르러 남녀의 구분이 생겼지만 타성인 외손과 사위의 기재정도는 여전히 상당했다.

대구서씨를 이루고 있는 인물들은 그 상당수가 서성 이하의 네 가계로 이들은 대구서씨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가계들이었다. 두 족보에서 이들 네 가계는 동족집단을 구분 짓는 하나의 기준이자 족보에서 기재되는 기준이었다. 임오보에서는 이들 네 가계만 향렬자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을미보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타 가계에서도 동일한 향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렬자는 개명을 통해 바뀌었는데 이때 개명은 형제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 족보에 계속 기재되기 위해 향렬자를 바꿔 동족집단으로 유입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동족집단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가계 간 구분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미 동족집단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족보에 꾸준히 기재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향렬자를 계속 사용해야 했다. 그만큼 족보는 단순히 하나의 가계 기록이 아닌 당대 대구서씨가 마주한 사회를 반영한 사료였던 것이다.

키워드 : 동족집단, 향렬자, 범례, 가계, 개명

목 차

I. 머 리 말	1
1.1 연구 경향과 문제제기	1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5
II. 『大丘徐氏世譜』의 간행 배경과 기본 구성	8
2.1 족보의 간행 배경	8
2.2 족보의 기본 구성	18
III. 족보의 구성원들과 동족집단의 형성	24
3.1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	24
3.2 항렬자의 사용과 그 범위	33
IV. 맺 음 말	50
참 고 문 헌	53
ABSTRACT	55

표 목 차

[표 1-1] 임오보(1702) 구성	8
[표 1-2] 을미보(1775) 구성	15
[표 2-1] 각 족보의 별 범례에 따른 기재 방식	22
[표 3-1]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타성인원과 총 서씨인원수	25
[표 3-2]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세대별 인구 수	26
[표 3-3] 임오보(1702)의 서씨 남성 출생 시기	29
[표 3-4] 을미보(1775)의 서씨 남성 출생 시기	30
[표 3-5]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가계별 기재 인원수	31
[표 3-6] 임오보(1702) 서씨 직계 간 향렬자 사용	35
[표 3-7] 을미보(1775) 서씨 직계 간 향렬자 사용	36
[표 3-8] 임오보(1702) 가계별 16-19세대 직계 향렬자 사용양상	38
[표 3-9] 을미보(1775) 가계별 16-19세대 직계 향렬자 사용양상	39
[표 3-10] 임오보(1702) 서계(庶系)간 향렬자 사용	41
[표 3-11] 을미보(1775) 서계(庶系)간 향렬자 사용	42
[표 3-12] 임오보(1702) 가계별 16-19세대 서계의 향렬자 사용양상	43
[표 3-13] 임오보(1702) 가계별 16-19세대 서계의 향렬자 사용양상	43
[표 3-14] 유달 가계의 족보별 향렬자 사용양상	45
[표 3-15] 을미보(1775)에서 개명한 인물들의 향렬자 공유 범위 변화	47

그 립 목 차

[그림 3-1]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세대별 서씨 남녀 인구 수 .. 27

I. 머리말

1.1 연구 경향과 문제제기

족보란 친족으로 인식된 인물들의 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정리한 기록물이다. 이때 원칙이란 범례를 말하는데 족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당대 동족집단의 의도와 목적을 보여준다. 그를 토대로 완성된 족보 기록은 동족집단의 내력과 그들의 혈연 및 혼인관계를 설명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동족 집단의 친족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족보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나뉘는 족보의 기준 또한 다양하다.¹⁾ 그러나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시조 이후 종적으로 이어지는 후손들 간 관계와 동일 세대 간 횡적관계를 최대한 기록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따라 본다면 족보의 범위는 조선시대에 들어 등장한 기록물로 좁힐 수 있다.

한국사 연구에서 족보는 당대 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연관되어 의미가 부여되고 읽혀졌다. 먼저 15세기 족보의 출현은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었다.²⁾ 때문에 조선전기 족보는 형태에 있어 조선후기의 그것과 비교되어, 완전한 부계중심의 문중이 형성되지 않은 것

1) 족보에 대한 정의는 기존 여러 연구들에 나타나 있으며, 족보를 정의 짓는 기준 역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최재식은 족보를 동족(씨족)의 계보를 기록한 것으로 정의했는데, 여기서 동족(씨족)이란 同祖意識을 가진 남계 친족을 가리킨다고 했으며, 족보에는 씨족, 본종, 종족, 종으로 나타나 있다고 했다. (최재식.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역사학보』, 81, p.37) 차장섭은 시조로부터 혈통의 계승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선후 대수와 항렬별로 친소관계를 밝힌 기록이라고 지칭했고(차장섭. (2010).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역사교육논집』, 44, p.239) 송준호 역시 이와 비슷하게 족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송준호. (1980).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역사학보』, 87.) 한편 권기석은 한 성관(성씨와 본관) 전체 또는 그 가운데 한 계파에 속하는 자손의 혈통과 혼인관계를 일정한 도표와 서식에 따라 기록한 가계기록으로 보았다.(권기석. (2010). “15~17세기 族譜 간행과 참여계층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위와 같이 정의했다.

2) 이창기. (2010).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46.

으로 받아들여졌다.³⁾

반면 후기의 족보 형태는 16세기 임란 그리고 17, 18세기 성리학의 발달과 연관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주를 이뤘다. 임란 이후 혼란한 사회를 성리학으로 결속시키고자 했고, 이는 곧 부계혈연을 기반으로 한 친족제도의 강화로 나타났다. 문중의 결집과 발달, 파보의 출현⁴⁾ 등은 이를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족보의 형태도 외손의 기재 정도가 축소되거나 선남후녀의 기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근 족보 편찬의 일차적인 의미를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증명해 이러한 의미 부여에서 벗어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족보의 일차적 의미란 족보 편찬은 지배 집단이었던 사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이들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족보 편찬 의미를 족보의 형태나 사회적 배경이 변화해도 시대를 막론하고 한 동족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연결지어 보았던 것이다. 그 동족집단의 사회적 위상을 격상 내지 유지시켜주는 도구가 곧 족보라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도 그 의미를 증명하는 데 있어 족보를 다른 시선으로 보거나 족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흐름을 달리 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족보 속의 관계들, 즉 인적네트워크이다. 족보에 기재된 혼인관계를 거대한 인간 관계망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인데, 이를 전사하는 것이 곧 사회적 인간관계를 고려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다른 종류의 고문서와 함께 살펴보고 향촌사회 속 사족집단의 사회적 권위를 파악하거나⁵⁾, 족보 속 혼인관계를 분석하여 중앙정치집단의 형성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손병규는 『安東權氏成化譜(1476)』의 혼인관계를 분석하여 족보가 단순한 동족집단 간의 혈연적 가계기록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고려시대의 왕실이나 거족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안동권씨의 정치적 위상을 살펴보았다.⁶⁾ 백광렬은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성씨들의 혼인 및 혈연관계를 수치화하여 세기별 그 양상을 파악했다.⁷⁾ 이를 통해 혼인이라는 것이 정치집

3) 최재석, 앞의 논문.

4) 최재석. (1981). “族譜에 있어서의 派의 形成”. 『민족문화』, 7.

5) 김봉곤. (2013). “智異山圈(南原)土族 朔寧崔氏 家系記錄과 通婚圈”. 『고문서연구』, 42.

6) 손병규. (2012). “족보에서 보는 왕실과의 혼인 기록과 계보 형태”. 『장서각』, 27.

단의 형태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중 형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루어졌다. 족보 간행에 따른 문중의 형성과 결집에는 내부의 분열이나 차별화도 동시에 형성된다는 시각이다.⁸⁾ 이는 문중이 통합적이면서도 동시에 분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야지마 히로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특정 성씨만이 중앙정치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그 성씨 내에서도 일부 문중만이 계속해서 관직자를 배출했음을 확인했다.⁹⁾ 그리고 이를 통해 양반이라는 것이 결국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신분이었음을 시사했다. 한상우 역시 개인이나 가계의 科宦, 宗孫 등의 요소들이 문중 전체의 정치적 성향보다 중시되기도 했다는 것을 병호시비 당시 유력 가문들 간 혼인관계로 증명했다.¹⁰⁾ 문중의식과 더불어 개인이나 가계가 지니고 있는 성향의 힘이 상당했음을 파악한 것이다.

이 시각은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에 대한 시각 변화로도 이어진다. 조선후기 족보가 곧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이라는 것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들 연구는 특히 여성이 기재되는 정도나 외손들의 기재 등을 통해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혼인한 인물들을 분석하여 신분이나 지배집단의 요소 등을 설명하려는 시도로도 이어졌다. 권기중은 달성서씨 족보에 외손을 포함한 타성 인물이 직계손보다 많이 기재된 것을 통해 족보가 단순한 혈연집단의 가계기록이 아님을 밝혔다.¹¹⁾ 이상국은 이제현 가계가 『안동권씨성화보』에 기재되는 것을 통해 타성인물이 족보에 기재되는 것은 사회적 위상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엔 관직이나 현인인 조상 등이 고려된다고 보았다.¹²⁾

7) 백광렬. (2017). “조선후기 지배엘리트 ‘친족연결망’(Kinship Network)의 개념과 분석방법”. 『사회와 역사』, 114.

8) 즉 부계혈연집단의 결집 측면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부에서는 문중내지 가계별로 구분하거나 차별화를 두려는 모습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9)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비교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구”. 『한국사학보』, 32.

10) 한상우. (2013).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1.

11) 권기중. (2010). “조선후기 족보의 인적 구성과 특징 : 『達城徐氏族譜(1769)』를 중심으로”. 『사림』, 43.

족보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먼저 기존에 연구되어 온 족보들이 사족의 족보라 하더라도 조선 초에 편찬된 족보거나, 지방사회에서 활동한 성씨들의 족보라는 점이다. 물론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사족집단을 연구한 사례가 있지만 한 성씨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이 아닌 정치집단의 하나로 그들을 살핀 것이다.¹³⁾ 즉 사족들 간의 정치적·사회적 관계성은 파악할 수 있으나, 한 동족집단의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바라보기엔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동안 문중이나 가계의 양상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기도 했다. 조선 후기 동족집단이 여러 가계나 파로 나뉘는 것에는 꾸준한 관심이 있었으나¹⁴⁾, 종약¹⁵⁾ 등 고문서 자료와 함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족보 그 자체만을 통해 이를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문중형성에 있어 경제적 혹은 사회적 측면을 더욱 잘 설명해주지만¹⁶⁾, 한편으로는 동족집단의 양상을 내밀하게 살펴보기 힘들다.

족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기존의 시각과는 다르게 보려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족보 내용면에서의 변화나 지속성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도출코자 하는 시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 중 시기별로 조선 시대의 족보형태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나¹⁷⁾, 족보의 序·跋文과 범례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경향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18세기에 간행된 대구서

12) 이상국. (2010). “『안동권씨성화보』에 기록된 이제현 가계 사람들”. 『사람』, 35.

13) 백광렬, (2017). 앞의 논문.

14) 조선 후기 문중형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문중 형성 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재석. (1981). 앞의 논문. ; 정승모 (2006).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 방식”, 『역사민속학』, 23. ; 이해준. (1993).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 23.

15) 김필동. (2009).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 파평윤씨 노종파(魯宗派)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0.

16) 김문택은 진성이씨의 족계 운영을 통해 16, 17세기에도 부계 중심의 족계가 운영되었음을 시사했다. 김문택. (2005). “16~17C 안동 진성이씨의 족계(族契)와 문중(門中)조직의 형성과정”. 『조선시대사학보』, 32.

17) 권기석. (2007). “15~17세기 族譜의 編制 방식과 성격 : 序·跋文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규장각』, 30.

씨 족보의 기재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 족보의 수보 방향을 새롭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구서씨는 조선 전반에 걸쳐 많은 관직자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성씨이다. 이러한 大姓의 족보는 분명 조선후기 족보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고는 대구서씨 족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때 대구서씨는 고려 조 균기소윤을 지낸 徐開을 시조로 하는 성씨(典客公派, 이하 京派라고도 한다.)로 한정했다.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구서씨와 달성서씨는 따로 족보를 간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같은 성관을 갖고 있다는 인식아래 때때로 달성과 대구를 혼용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달성서씨와의 혼선을 없애고자 서한을 시조로 둔 인물들을 연구대상으로 규정했다.

대구서씨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는데 세종대부터 성종대까지 활동했던 徐居正이후 14대손인 徐濬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서성은 선조대부터 인조대까지 호조·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인물로 그 후손들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서성의 아들 徐景喬는 정신옹주와 혼인하여 선조의 사위가 되었으며, 徐景需의 증손 徐宗悌의 딸은 영조의 비 貞聖王后가 되었다. 꾸준한 관직자 배출도 이어져 대구서씨는 정조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성씨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서경주, 서경수 가계는 가장 많은 관직자를 배출하였다.¹⁸⁾ 대표적으로 영의정을 지낸 徐龍輔, 규장각 대제학을 지낸 徐命膺과 직제학을 지낸 그 아들 徐浩修 등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개화파였던 徐光範, 徐載弼역시 대구서씨였다.

대구서씨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일정 부분 이루어졌는데 크게 문종과 족보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중 문종에 대한 연구는 대구서씨를 양반으로씨의 계층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¹⁹⁾과 해방 후 종회형성 과정을 살핀

18)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앞의 논문. 228-235.

것²⁰⁾이었다. 족보에 대한 연구는 족보의 서·발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기재방식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²¹⁾ 한편 대구서씨와 같은 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달성서씨에 대한 연구는²²⁾ 족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도 대구서씨 족보 기록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다. 때문에 이 점에서 이번 연구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연구될 족보는 1702년과 1775년에 각각 간행된 『대구서씨세보』이다.²³⁾ 두 족보는 같은 18세기 전기와 후기에 만들어진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구성이나 형태에 있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첫 족보인 1702년 족보는 그 기재 형태나 구성이 일반적인 조선후기 족보와 다르다. 형태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전기 족보의 형태와 많이 닮아있다. 반면 1775년에 간행된 족보는 1702년 족보와는 다른 구성의 족보로, 일반적인 조선후기 족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족보의 근간인 범례와 서·발문을 통해 드러난다. 범례는 족보를 수보할 당시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당시 족보 간행자가 갖고 있던 수보 기준과 기재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서·발문 역시 족보 간행 경위와 성씨의 연원 등 족보의 수보 목적과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족보의 차이는 수보 의도나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대구서씨가 지녀야 하는 정체성에 달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구서씨는 족보 간행에서 같은 관을 갖고 있는 달성서씨와 의견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의견차는 족보로 규명되는 동족집단이 어떤 의미였는지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다.

때문에 범례와 서·발문을 가장 먼저 분석해보고자 한다. 족보 특성 상 이

19)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앞의 논문.

20) 최재석. (1968). “동족 집단조직체의 형성에 관한 고찰-온양방씨와 대구서씨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

21) 권기석. (2019). “조선시대 족보의 女性 등재 방식 변화-여성의 夫家 귀속과 다원적 계보의식의 축소-”. 『조선시대사학보』, 90.

22) 권기중. (2012). 앞의 논문. ; 권기중. (2013). “조선후기 호적을 통해 본 계보와 사회적 네트워크: 족보와 호적을 통해 본 조선후기 대구지역 달성 서씨의 계층성”. 『대동문화연구』, 83. ; 권기중. (2014). “달성 서씨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신분변화의 장기 추세와 그 의미”. 『한국문화』, 67.

23) 대구서씨는 1702년 임오보, 1736년 병진보, 1775년 을미보를 간행했다. 본고는 이중 임오보와 을미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병진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것들은 반드시 대구서씨의 변성을 나타내도록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중 범례는 타성과 대구서씨를 구별하는 기준 외에도 대구서씨 내부에서 서로를 구분 짓는 기준선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재목적은 족보가 특정 인물들만을 기재하게 만들어 사료로써의 가치에 의문을 던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다면 기재된 특정 가계의 정보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고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족보 속 수보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고, 이들이 가리키는 주요 가계들을 대상으로 실제 동족집단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록에 대한 분석은 향렬자의 사용 양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향렬자는 동족집단 내에서 구분을 목적으로 만든 규칙인 동시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일종의 범주였다. 대구서씨는 타 성씨와 마찬가지로 향렬자를 써서 세대간 구분과 또 다른 범위의 동족집단을 구성했다. 본고는 향렬자 사용 사례들을 촌수라는 기준을 통해 공유의 정도를 알아보고 가계별로 양상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족보가 사족들의 사회적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만큼, 향렬자 사용 범위는 유력 가계를 중심으로 나뉘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족집단은 구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대구서씨 내부에서 향렬자를 바꾸는 개명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동족집단이 유동적인 집단임을 드러낸다. 단순히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그로부터 나오거나 새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이다. 본고는 두 족보를 비교해 개명한 인물들을 추적하여 이들의 향렬자 공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코자 했다. 대구서씨는 조선전반 중앙정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성씨인 만큼 이들의 동족집단의 구성이나 목적은 그에 맞게 구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Ⅱ. 족보의 간행 배경과 기본 구성

2.1 족보의 간행 배경

대구서씨는 고려조 군기소윤 서한을 시조로 둔 성씨다. 이들은 조선조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중앙정부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조선후기 정조대에 이르러 많은 관직자들을 배출했다. 그런데 족보의 간행은 다른 성씨들에 비해 늦었던 것 같다. 10대손인 서거정은 외손의 자격으로 1476년에 『안동권씨성화보』의 발문을 작성하여 안동권씨 족보 편찬에 기여했다. 그러나 정작 대구서씨의 첫 족보는 18세기 초가 되어서야 나왔던 것이다.

그 최초의 족보가 바로 1702년 간행된 『大丘徐氏世譜』(임오보)이다. 족보는 총 3권으로 각 天, 地, 人의 冊次를 가지고 있다. 天과 地편은 「跋文」, 「大丘徐氏附錄」, 「宗訓」, 「凡例」를 포함해 대구서씨 직계손과 그의 외손들이 20대까지 기재되었고, 人편은 별보로 달성서씨와 그 사위들이 17대까지 수록되었다. 그 책차별 인물의 수록 범위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임오보(1702) 구성

冊次	編	수록내용 및 범위
天	上	跋文
		大丘徐氏附錄
		宗訓
		凡例
		대구서씨 1~15대까지의 인물 수록
地	下	대구서씨 15~20대까지의 인물 수록
人	別譜	판도공파(달성서씨) 1~17대까지의 인물 수록

족보 간행을 중심으로 맡았던 徐文重은 발문도 직접 작성했다. 발문에는 족보 간행의 의의를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서씨

성의 유래였다. 그는 일부 타성끼리 서로 연원이 같은 경우를 언급하며 利川의 서씨와 대구의 서씨가 같은 연원이라는 것도 이치가 있으나 고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²⁴⁾ 족보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객관성을 유도하며 족보에서 다룰 대상을 한정지은 것이다.

족보의 필요성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점은 “先祖로 이어진 자손”이라는 인식이었다. 서문중은 親疏가 없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선조를 통해 이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²⁵⁾ 이때의 선조란 시조 서한을 뜻하는데 “선조로 이어진 자손”이란 결국 서한을 시조로 한 전객공파, 즉 경파를 뜻한다. 이어 여태껏 족보가 없어 동족임에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점을 들어 족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친족 간에 近遠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발문의 마지막엔 徐湑 이하 네 가계의 변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서문중은 서거정 이후 줄곧 계통이 부진했으나 서성 이하 네 아들들로부터 다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아름다운 덕이 후손에게도 전달코자 족보를 간행한다고 하였다.²⁶⁾ 대구서씨의 사회적 권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尊崇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임오보의 간행이 늦었던 이유나 간행의 실질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다. 대신 족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발문에 의하면 대구서씨의 同族은 하나의 시조로 연결된, 즉 서한을 시조로 두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부계혈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범례에서는 외손에 대한 기재 사항을 최대 5세대까지 기재토록 했기 때문이다.²⁷⁾ 즉 서한을 시조로 둔 인물들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타 성씨의 인물들이 대구서씨 족보의 기재 대상인 “동족”이었던 것이다.

24) 徐文重. (1702). 大丘徐氏族譜跋. 『大丘徐氏世譜』. “…徐氏之譜不傳於世故不知所始而或云達城利川之徐同出一源夫權金同祖新羅 鮮于韓竝系箕子則一徐之同貫理或然矣文獻不足無可考信眉州之譜不及蘇長史又何害也…”

25) 徐文重. (1702). 『大丘徐氏世譜』. “…然自其禰而及其祖以溯其所自出則本乎同氣今於吾不無親疏而自祖先視之則均是子孫也…”

26) 徐文重. (1702). 『大丘徐氏世譜』. “…遇其族而問焉則共此姓也同吾祖也戚然而感 欣然而悅不知其所以然者乃人之情…至于忠肅公亦倅而孤及長有四丈夫子百餘年間內外子孫繁盛殆將千數而得姓亦且二百有餘人世襲冠冕科第不絕…茲以是勉飭釋昧仍以爲識”

27) 다음 절 임오보(1702)의 해당 범례 참고.

또한 그러한 동족은 특정 가계나 혼인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념화되었다. 가장 변창한 서성 이하의 가계들을 발문에서 언급한 점이나 내용상 혈연적으로 먼 타성이지만 端懿王后가 직계 여성의 후손인 점을 들어 기록한 사례는 이를 잘 말해준다.²⁸⁾ 즉 기념할 만한 계보 위주의 기록으로 족보를 간행코자 했으며 이러한 의도가 곧 족보의 수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변성한 가계와 특정 혼인관계의 강조를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특히 왕실과의 연결성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대구서씨에게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지위의 격상을 가져왔을 것이다. 실제로 서경주가 선조의 사위가 된 이후, 경주가계는 종친이나 전주이씨와의 혼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임오보 간행 후인 1704년(숙종 30)에 경수가계의 서종제 딸은 영조의 비로 간택되기도 했다.

임오보의 부록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작성되었다. 대구서씨는 발문이 아닌 부록에 대구서씨의 연원 고증과 족보의 간행 경위를 적어두었다. 부록의 존재는 대구서씨에게 있어 임오보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정의하고자 한 “대구서씨”를 보여준다.

이중 족보의 간행 경위는 연원 고증에 비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그 주요 간행 과정은 확인할 수 있다. 족보의 간행은 종계의 재산을 이용하여 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족보의 검수는 월에 세 번 종인들 간에 일을 분담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족보 외에 碑誌 역시 간행하려고 했으나 재력 등 모종의 이유로 그러지 못했던 거 같다. 이에 비지에 대해서는 훗날 수령이 된 후손을 중심으로 비지 간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기도 했다.³⁰⁾

28) 서경주의 다섯째 딸은 감사 李萬雄과 혼인하였는데 그들의 5대 손녀가 바로 경종의 비인 端懿王后이다. 단의왕후는 沈浩의 딸이자 沈德符의 후손으로 1696년(숙종 22)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임오보(1702)에는 당시 경종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王世子嬪”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혈연관계가 가깝지 않더라도 직계 여성의 후손이란 점을 들어 왕실과의 혼인관계가 족보에 기재되었다.

29) 권기석은 이러한 기재가 同類의식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조선후기의 족보에서도 나타나는데, 동일 문벌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았다. 권기석, (2020). “조선후기 족보 入錄의 정치·사회적 의미 -족보가 갖는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의 兩面性を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2, 195-197.

30) (1702). 大丘徐氏附錄. 『大丘徐氏世譜』. …捐出宗契留錢數百兩始役於宗家三閱月乃畢先分於諸宗人而至於碑誌物力不逮不得一時並舉茲以正書藏于宗家以待他日凡我子孫或有按道之人則可以刊行不

부록의 내용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대구서씨의 연원에 대한 고증이다. 처음으로 간행되는 족보인 만큼 대구서씨는 성씨에 대한 연원을 가능하면 자세히 밝히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高麗史』, 『輿地勝覽』, 『義城金氏族譜』³¹⁾ 등의 문헌과 중앙정부와 지방이 주고받은 공문에서 관련 내용들을 발췌 및 인용하였다. 공식적인 선상에서 성씨의 연원을 밝혀 내용에 대한 객관성까지 얻고자 한 것이다.

고증에 대한 대구서씨의 철저한 태도는 달성서씨와의 관계나 족보의 구성을 봤을 때 중요하다. 성씨의 연원을 밝히는 과정이 곧 달성서씨가 별보에 실리게 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증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부분은 대구서씨와 달성서씨가 같은 성관을 갖고는 있으나 과연 하나의 동족인가였다.

이때의 달성서씨는 고려조 版圖判書를 지낸 시조 徐晉의 후손들로 版圖公派라고 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세거했던 전객공파와 달리 영남지방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鄉派 라고도 한다. 대구서씨와 달성서씨는 분명 성관이 같지만 시조로 둔 인물이나 세거하는 지역이 달랐던 각기 다른 族派였다. 대구서씨는 이러한 점을 부록에서 짚어 달성서씨와 자신들을 구분 지었다.

대구서씨는 달성서씨와 동족임을 인정하면서도³²⁾ 나눠지게 된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대구의 서씨와 달성의 서씨는 각 그 선조가 서거정과 서균형인데 양파가 나눠지게 된 경위는 관련 기록이 없어 고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대구서씨는 족보로 보임에 차별이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³³⁾, 이를 족보의 구성을 통해 드러냈다. 족보 구성상 달성서씨를 제일 마지막인 人책에 별보로 따로 기재하였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주석 역시 간략히 하여 그 차별의 정도를 확실하게 나타냈다.

然作宰南邑亦可以辦得庶幾無負我今日之志

31) 의성김씨족보의 경우 정확히 몇 년도에 간행한 족보인지 나와 있지 않다.

32) (1702). 大丘徐氏附錄. 『大丘徐氏世譜』. “...義城金姓人譜中云徐之先出自箕子遠不可考新羅末有徐神逸高麗初有徐穆利川之徐皆其後也大丘峯城分自利川同是徐神逸之後按譜徐有二派一則達城君徐穎之後一則判典客寺徐益進之後其源同一派也姑錄于此以爲他日考證之地”

33) (1702). 大丘徐氏附錄. 『大丘徐氏世譜』. “...大丘載麗末徐鈞衡及本朝徐四佳居正鈞衡卽樂徐思遠之先世也四佳卽吾家先世也一鄉之徐分爲兩派似無是理先世事蹟無可考證而第異於他徐茲以別錄附諸篇末略其旁註所以示其有間也...”

이러한 구성 방식을 영남에 세거하고 있던 달성서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성서씨는 『達城徐氏族譜(1755)』 「小序」를 통해 부록의 내용에 대해 변론했다. 먼저 족보의 간행경위와 족보의 구성에 대해, ‘京中 종인’(대구서씨)들이 京鄕 제종 재력으로 족보를 만들면서, 달성서씨를 별보로 둔 것에 ‘嶺中 종인’들은(달성서씨) 온당치 않게 여겼다 언급했다. 이어 1736년도 대구서씨족보에는 단지 전객공파(대구서씨)만을 실은 것을 두고 이때부터 족보가 두 갈래로 나뉘게 나오게 됐음을 밝혔다.³⁴⁾ 1736년에 간행된 丙辰譜의 범례에도 판도공파(달성서씨)는 임오보에 이미 기록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³⁵⁾

향파인 달성서씨 역시 두 성씨가 나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달성서씨의 선조인 徐穎과 대구서씨의 선조인 徐益進이 받은 향관이 같은 바, 같은 관향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달성서씨를 별보로 칭하는 것에는 마땅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³⁶⁾

임오보와 병진보의 간행 이후 대구서씨와 달성서씨 간의 교류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을미보(1775)에는 다시 달성서씨들이 기재되었는데, 이로써 달성서씨에 대한 대구서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서씨는 1775년에 또 다른 『대구서씨세보』(을미보)를 간행했다. 을미보는 대구서씨가 간행한 족보 중 세 번째로 만들어진 족보이다. 서문에 의하면 을미보를 만들기 위한 의논은 영조 32년(1756)부터 이루어진 것 같다. 중심 수보자였던 徐命膺은 徐宗伋와 함께 족보가 나온 지 20년이 다 되었으니 족보를 다시 만들 필요성을 제시했다.³⁷⁾ 그러나 당시 재력이 충분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이후 1774년 湖南伯이 된 徐浩修를 중심으로 재력을

34) (1755). 乙亥新鐫大丘徐氏世譜小序. 『達城徐氏族譜』. “...肅廟壬午京中宗人始聚京外諸宗財力刊出譜牒而反以版圖公派爲別譜嶺中諸宗皆以爲未妥今重刊其譜而只錄典客公一派自此勢當分爲兩譜矣...”

35) (1736). 丙辰新鐫大丘徐氏世譜凡例. 『大丘徐氏世譜』. “...一, 版圖公別派舊譜既載錄今姑闕之”

36) (1755). 乙亥新鐫大丘徐氏世譜小序. 『大丘徐氏世譜』. “...壬午譜刊於京中而別譜編修有小序云版圖公派亦系達城必是同貫而世代已遠譜牒無徵未能明知故不敢渾錄於本譜姑爲別譜以附篇末云云今攷譜牒四佳公在我世祖朝始封達城君而我先祖重光祿大夫諱穎在麗朝已封達城君鄉貫既同故封號亦同何可謂之未能明知耶...”

37) 徐命膺. (1775). 重鐫大丘徐氏世譜序. 『大丘徐氏世譜』. “...公蹶狀曰一吾家譜丙辰增修之後今二十有餘年後承益繁衍昌熾吾與若可又增修也”

모아 족보 간행 작업을 시작하였다.³⁸⁾

서문을 통해 을미보의 간행 경위는 첫 족보인 임오보 간행 목적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첫 족보와는 다르게 을미보는 당시 주기적으로 간행해야 하는 기록물로 다뤄졌으며 비용 문제가 간행에 가장 큰 문제였다. 때문에 재정이 충분히 모아진 다음에야 간행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임오보에서 추구하던 간행의 궁극적 목적이 달라지진 않았다. 을미보 역시 후손들의 번창을 담아내기 위해 족보를 증수했다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을미보는 春, 夏, 秋, 冬 책명의 총 4권으로, 자손이 최대 23세대까지 기재되어 있다. 첫 春책에는 을미보의 「重鑄大丘徐氏世譜序」 그리고 이전 족보들의 발문과 범례, 「乙未重鑄大丘徐氏世譜凡例」, 「大丘徐氏世譜年代考」, 「大丘徐氏世譜編目」 이하 족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권인 夏와 秋책 역시 기재된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冬책은 나머지 서씨인물들과 함께 판도공파인 달성서씨, 「墓表」, 「神道碑銘」, 「墓誌銘」, 「碑」, 「補遺記」, 「名字行第圖」가 실려 있다.

대구서씨는 달성서씨를 따로 인월 보강 없이 임오보에 기재했던 그대로 이들을 실었다. 성과 관이 같아 의심할 여지없이 같은 同府이나 판도공파(달성서씨)가 이미 족보가 따로 있기에 그 대략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이유였다.³⁹⁾ 을미보를 간행하며 달성서씨를 본보로 실어주었으나 증원 없이 그대로 기재해 달성서씨를 동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을미보는 초기 족보보다 더 완전하고 체계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필요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중심 수보자인 서명응은 서문에서 우리나라(조선) 족보의 종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족보의 재증수와 함께 족보범례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⁴⁰⁾ 그리고 이에 따라 범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상당기간 진행

38) (1775). 乙未重鑄大丘徐氏世凡例. 『大丘徐氏世譜』. “…昨歲甲午浩修忝爲湖南伯則先是祖考貞簡公刻碑稿於湖南營先考文敏公刻前譜於湖南營矣諸宗人咸曰是譜遷就無乃有待於今乎遂合族大宗宅使浩修與宗人之爲邑宰者鳩其財力又使宗人之嫻習譜學者 增補丙子以後生卒昏配官秩始克付剞劂而道其所以有待有爲之序”

39) (1775). 乙未重鑄大丘徐氏世凡例. 『大丘徐氏世譜』. “…惟大丘之徐一爲版圖公派一爲少尹派姓同貫也居同府也其出於一源無可疑者然版圖公派既自有譜今以壬午譜所載舊本無所增損載之壬編以見其槩云”

40) 서명응. (1775). 重鑄大丘徐氏世譜序. 『大丘徐氏世譜』. “…我國族姓之譜亦如宋朝人各爲書門戶殊

됐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 따르면 서종급은 족보의 증수애기가 나온 시점부터 7, 8년간 다른 타 성씨의 족보들을 참고하여 범례를 새로 작성하였다.⁴¹⁾ 오랜 기간에 걸쳐 작성된 범례는 이전 족보의 범례들보다 자세해 족보의 내용이나 구성의 근간을 더욱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체계화는 족보에 기재된 인물들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서씨세보편목」은 10개의 천간으로 편을 나누었다. 임오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자손수가 이러한 체계적 정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겠지만 후세에 또다시 족보를 증수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⁴²⁾ 이중 9개의 편은 [표 1-2]와 같이 각 族派 별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別而鴻儒碩士競出新意飾其義例頗彬彬觀狀其年表之中寓以宗法則猶未也”

41) 서명응. (1775). 重鑄大丘徐氏世譜序. 『大丘徐氏世譜』. “增修則其必兼取衆譜之美乎自是七八年公研精覃思閱諸姓譜十數家去短取長 更立義例要以年表宗法爲其範圍既成未及付剞劂而公下世矣”

42) (1775). 乙未重鑄大丘徐氏世凡例. 『大丘徐氏世譜』. “少尹公以下皆一二派相傳及至忠肅公舉四丈夫子則派別愈蕃故今以少尹公止忠肅公凡十四世爲甲編而晚沙公派爲乙編典籤公派爲丙編僉樞公派爲丁編都尉公派爲戊編奉事公派爲己編瑞興派爲庚編四佳公派爲辛編版圖公派爲壬編而甲編所載十四世以上表碑誌龜巖書院碑文附以墓山記名字圖爲癸編合成十編以足十干之數後有繼此而爲之譜者甲編則無所動焉乙編以下當曰某編之一某編之二某編之三後編續成之時前編亦不動焉以至無窮庶省屢刊之勞也”

[표 1-2]을미보(1775) 구성

冊次	編	卷	派
春	甲	1	소윤공이하원파
		2	
	乙	1	만사공파
		2	
夏	丙	1	전첨공파
		2	
	丁	1	첨추공파
		2	
秋	戊	1	도위공파
		2	
冬	己	1	봉사공파
		2	
	庚	1	서흥파
		2	
	申	1	사가공파
	壬	1	판도공파(달성서씨)
	癸	1	墓表
		2	神道碑銘
		3	墓誌銘
		4	碑
			補遺記
			名字行第圖

*을미보의 「重鑄大丘徐氏世譜序」, 이전 족보들의 발문과 범례, 「乙未重鑄大丘徐氏世凡例」, 「大丘徐氏世譜年代考」, 「大丘徐氏世譜編目」은 春 책 편목 앞에 실려 있다.

派는 하나의 동족집단이 시간이 흐를수록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특정 顯達한 인물을 중심으로 나뉘어 개별 집단화 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다수의 성씨들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파가 형성되었는데, 대구서씨 역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파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⁴³⁾ 임오보에는 파명이 존재치도 않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씨 인물들을 분류하지 않았지만, 을미보에 이르러선 파를 형성해 파별로 編을 만들어 인물들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대구서씨는 을미보 기준 시조부터 14대까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少尹公以下源派와 이후 여기서 뻗어 나온 派 7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4개 파

43) 최재석. (1981). 앞의 논문, p.273

는 임오보와 병진보의 서·발문에서 언급한 서성의 아들들 가계였다. 서성의 아들들은 각 족파의 派祖가 되어 개별 파를 형성했다. 徐景雨의 가계는 晚沙公派, 徐景需의 가계는 典籤公派, 徐景霽의 가계는 僉樞公派 그리고 徐景靄는 都尉公派로 파를 형성했다.

위 네 파처럼 派名은 보통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로 명명되기도 했지만 거주하였던 지역이 파명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14대 徐沖의 아들 徐景震의 가계가 그렇다. 임오보에서 이들은 서경진의 아들인 興履와 泰履, 그의 손자인 尙遠, 起遠, 美遠, 致遠, 遠攀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홍리 옆에는 “居瑞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을미보에서는 이들의 거주구역이 파명으로 바뀌어 瑞興派로 기재되었다. 이밖에도 徐興立의 아들인 徐惟達 가계는 四佳公派, 徐浚의 아들인 徐景穉의 가계는 奉事公派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하나의 가계였으나 개별 파로 발전되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다. 서자 徐養의 아들인 徐景霖의 가계이다. 이들은 족보 기재 상 원파인 소운공이하원파에 소속되어 기재되었다. 15대 인물을 중심으로 대구서씨 내부에서 파가 형성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던 것이다.

을미보의 증수과정 역시 족보의 수보 목적을 잘 보여준다. 임오보와는 달리 을미보에는 구체적인 증수과정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대신 冬 책 마지막 장에는 족보를 증수하는데 참여한 인물 18명이 실려 있다. 그들은 각자 교열, 鳩財 등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져있으며 관직자인 경우 관직명과 함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증수자들 상당수가 특정 파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⁴⁴⁾ 족보의 수보에 참여한 인물들 중 교열을 맡은 4명은

44) 을미보(1775) 수보에 참여한 인물들과 그 가계는 다음과 같다.

역할	가계	이름	관직
校閱	경수	命鳳	-
	경주	退修	-
	경수	孺修	-
	경주	有後	-
鳩財	경주	命敏	載寧郡守
	경빈	命緯	龍仁縣令
	경주	日修	丹陽郡守
	경수	覺修	忠州牧使
	경주	懋修	南原府使
	경수	魯修	光州牧使
	경주	迥修	江原監司

모두 경수가계인 전침공파와 경주가계인 도위공파 인물들이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鳩財를 맡은 인물도 한 명을 제외하고 두 파에 소속된 인물들이었다. 족보제작이 경수와 경주가계 인물들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족보의 제작에 있어 특정 가계들이 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족보의 목적이나 의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대구서씨는 첫 족보인 을미보를 증수할 당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가능하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것은 경파인 대구서씨가 족보에서 향파인 달성서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로도 볼 수 있었다. 대구서씨는 범례와 부록을 통해 달성서씨를 같은 동족이라고 드러내면서도, 족보의 구성을 통해 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였다. 이 같은 분류는 족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음에 주목할 만하다.⁴⁵⁾ 같은 동족이라는 의식 하에 묶였지만 처음부터 이를 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달성서씨는 대구서씨에 의해 1702년엔 별보에 포함되었다가 1775년엔 대구서씨와 동일한 족보 편에 실렸다. 그만큼 족보는 한 대구서씨의 성격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동족을 규명할 때 특정 의도나 목적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서씨는 당대 여러 족보를 참고하여 을미보의 범례를 체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며, 편목의 구성 등 후대에 간행될 족보까지 염두 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내부에서 동족집단의 체계가 잡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정의가 대구서씨 자신들과 타인들을 구분 짓기 위함이었다면, 범례의 구체성은 내부에서의 대구서씨를 어떻게 나누느냐를 구분 짓는 하나의 도구였을 것이다.

그것은 범례의 체계화와 더불어 등장한 족파로도 설명할 수 있다. 파의 형

	경수	侃修	慶山縣監
	경주	浩修	全羅監司
	경주	郁修	金泉察訪
	경주	有綱	山淸縣監
	경수	有大	京畿水使
	경수	有和	鳳山郡守
	경수	日輔	淸風府使

45) 한편 권기석은 이에 대해 같은 동족으로 인식된 자들을 가능한 수록하여 그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권기석, (2010). 앞의 논문.

성은 15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총 7개의 파가 형성되었다. 그중에는 서성 이하의 후손과 같이 가계를 형성해 파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개별 파로 발전되지 못하고 원파에 소속된 경우도 존재했다. 개별 파로 발전된 가계 중 서성의 후손인 경수와 경주가계는 족보의 증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가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외에 대구서씨 내부에서 가계들 간에 차이가 존재했었다는 걸 말해준다.

2.2 족보의 기본 구성

연원고증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범례의 체계화는 대구서씨가 족보로 명명되는 동족집단의 구성에 민감했고 그를 구분 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범례가 정확히 어떻게 내부적으로 대구서씨를 구분하려고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고는 대구서씨의 동족집단을 족보 기준 하나 이상의 가계로 그 범위를 정의하고자 한다. 가계는 동족집단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서씨인 물들과 그의 외손, 사위로 이루어져 있다. 가계의 범위는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대구서씨가 인식하던 가장 관념적인 집단인 동족집단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범례는 족보 편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일종의 지침으로, 별책이 아닌 족보 내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성씨의 유래, 족보의 구조에 대한 설명, 인물 기록 사항의 제시, 달성서씨에 대한 기록 경위 등이다. 대구서씨 족보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따라서 범례를 살펴본다면 대구서씨가 인물을 기록하는 데에 어떠한 기재 방향을 잡았는지 알 수 있다.

살펴볼 족보의 범례는 임오보의 범례와 을미보의 범례이다. 두 범례는 각 족보의 간행된 시기만 살펴봐도 충분히 의미 있는 범례이다. 임오보의 범례는 대구서씨 첫 족보의 범례였다. 따라서 초기 족보의 형태를 결정 짓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초기 동족집단을 어떻게 나누고자 고민했는지 엿볼 수 있다. 을미보의 범례는 다른 여러 가문의 족보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범례이다. 즉 당시에 나온 족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원들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례라고 할 수 있다.

임오보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하나, 선대는 자와 생졸년월일, 과거급제, 관직 및 配室의 관향과 묘지 좌향 등을 밝혀 빠짐없이 적는다.

하나, 선대의 배실은 다만 부의 관작과 명자만 적었으나 그의 선대에 현인이 있으면 반드시 적는다.

하나, 자손 중 아들은 이름을 이룬 이부터 딸은 시집간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旁註는 세대 순으로 생략하여 降殺의 뜻을 둔다.

하나, 자손은 대수를 한정하지 않는다. ….

하나, 서파는 대략 적게처럼 하였으나 방주를 간략하게 하여 명분을 보였고 외파 또한 다 기록하지 아니한다.⁴⁶⁾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기재 사항의 정도에 따라 적서별 세대별 구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같은 성씨의 후손이지만 서파는 旁註를 간략히 해 직계와 구분 지었다. 또한 적서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기재하면서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해당인물의 방주를 간략히 했다. 이는 세대라는 종적 관계를 대구서씨가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생략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동일 세대 남녀 기재 순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대신, 직계 여성은 기혼인 경우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혼인여부는 범례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혼인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묘지와 관향 및 배우자 부의 과환을 적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의 선계에 현인이 있음 반드시 적도록 했다. 남성 여성의 기재 순서보다는 개개인의 기재 조건인 혼인여부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46) (1702). 大丘徐氏族譜凡例. 『大丘徐氏世譜』. “一. 先世表字生甲忌辰科第官職配室鄉貫墓地坐向無遺竝錄 一. 先世配室只書考位官爵名字而先系如有顯人則必書 一. 子孫男自成名女自適人以上畢錄而旁註以世代次第省略以存降殺之意 一. 姓孫不限代數皆錄妻鄉墓地使後世有所考識而墓地未完定則姑不書 一. 庶派略如嫡系而約其旁註以示名分外派亦不盡錄”

이것은 서씨와 혼인한 타성에 대한 정보가 서씨 족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혼인이라는 고리를 통해 연결된 타성들은 서씨인물들을 나타내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었다. 서씨 남성의 배우나 사위 정보는 양을 한정 지으면서도 반드시 해당 가계의 대한 정보가 기재되었다. 타성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직계에 대한 설명으로 치환한 것이다.

이러한 기재지침은 을미보에 이르러 몇 부분 달라진다. 아래 범례는 을미보의 범례이다.

하나, …종법에 5대로써 親盡이 되는 즉 친진이 되면 별종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방주를 갖추어 기록하고 다시 그 우측에다 고, 증조 이하의 휘를 기록하여 각각 등차를 두어서 그 파계의 소종래를 밝혔다.

하나, 방주는 구보에 의하여 자, 호, 과제, 관작, 생졸후년, 묘지, 비표를 갖추어 썼으나 별도로 호는 다만 세인이 공지하는 것만 기록한다.

하나, 선대는 비록 郎의 품계라도 기록하였지만 자손은 오직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만 기록하였으며…이것은 옛날은 상세하게 하고 현재는 간략하게 함이다.

하나, 평생의 언행을 비록 상세하게 들어낼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儒門에서 수업하였거나, 志行操守 숨겨져서 빛나지 못한 이는 모두 기록하였다.

하나, 시호는 그 덕행을 절차하는 것인바 평일의 언행을 대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태상에서 의논한 諡法과 訓話를 낱낱이 기재하였다.

하나, 본종은 남을 먼저 쓰고 여는 뒤로 쓰되, 딸 아래에 차례를 적어서 그 순서를 구별하였다.

하나, 서자는 모두 적녀 뒤에 쓰고 방주도 구보에 의하여 간략하게 차등을 두었다. 그 承嫡은 적녀의 앞에 기록하고 또한 그 자도 기록하였다.⁴⁷⁾

을미보 범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동일 세대의 남녀 기재 순서가 선남후녀로 바뀐 점이다. 대신 여성은 그 태어난 순서를 별도로 적어 구별을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구서씨 내부에서 남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세대나 적서에 따라 기록의 정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여전했다. 대신 세대별 구분이 기재 범위에 따라 좀 더 명확해졌다. 대표적으로 선대에 비해 후대의 품계를 적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이는 족보 간행 당시부터 대구서씨가 생각해온 세대별 적서별 구분이 18세기 후기에 이르러서도 가장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구분은 특히 선조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 새로 추가된 기재지침 중 선조의 행적이나 훈화, 그리고 어느 학맥을 갖고 있는지 등이 있었다. 이는 내부적으로 후손들에게 선조의 행적을 알리면서도, 외부적으로도 서씨 인물들 중 현인이 있음을 보여 그 사회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親盡도 마찬가지이다. 친진에 해당되는 인물은 이름 우측에 부계의 휘(이름)를 달아둠으로써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세대를 위한 조치이자 개별 파보다 작은 단위의 동족집단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파별로 編을 나누어 가계마다 인물을 정리했지만 결국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각 족보에서 서성 이하의 가계들이 서·발문을 통해 강조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해당 가계들은 다시 한 번 대구서씨의 번성을 가져왔으며 수보에도 큰 관여를 한 영향력 있는 가계였다. 따라서 대구서씨 내부에서 어느 인물이 그들 가계에 속해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각 족보의 범례를 비교한 것이 [표 2-1]이다.

47) (1775). 乙未重鐫大丘徐氏族譜凡例. 『大丘徐氏世譜』. “一. 譜所以寓從法也宗法五世而親盡則以繼曾祖之孫爲宗故譜圖橫分五階至第五階但書幾世不書旁註而昌見某板云云者以其當見後編第一階而親盡爲別宗也於是備書旁註復即其右旁書高曾以下之諱各有等差以明其派之所從來而亦使宗法行于其間也惟少尹公以下五世譜軼無傳故畫爲六階而虛其五以俟他日墳墓碑誌之有得而書之亦事勢之不容不爾也 一. 旁註依舊譜備書字號科第官爵生卒享年墓地碑表而別號則只錄世所共知者… 一. 先代則雖郎階亦書之子孫則惟通政以上階得書之在世則雖大匡崇政亦不書之所以詳於古而略於今也 一. 譜與碑不同平生言行雖必詳著其或受業儒門與夫志行操守隱而未光則皆謹書之亦徵賢闡幽之義也 一. 諡所以節其行可知平日言之大致故太常所議諡法訓話一一該載 一. 本宗先男後女女下書序以別其行第… 一. 庶子皆書於嫡女之下旁註依舊譜節約以存等威其有承嫡者則書於嫡之上且書其字”

[표 2-1] 각 족보의 별 범례에 따른 기재 방식

기재 방식	임오보(1702)		을미보(1775)	
冊次별 인물 기재 범위	세대 순		派별로 수록	
세대 별 방주 기재정도	후세대로 갈수록 간략화		후세대로 갈수록 간략화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 제시	
적자녀 기재순서	출생 순		선남후녀 여성의 경우 하단에 출생 순 기재	
서자녀 기재순서	출생 순		적녀 뒤에 기재하되 선남후녀 承嫡시 서자를 적녀 앞에 기재	
적서자녀 세대 기재범위	무제한		무제한	
계자의 표시	범례에 언급 없음		범례에 언급 있음	
	적자녀	계부 아래 기재될 경 우 이름 상단에 ‘繼子’ 표시 생부 아래 기재될 경 우 이름 하단에 ‘出繼’ 표시	적자녀	계부 아래 기재될 경 우 이름 하단에 생부 표시 생부 아래 기재될 경 우 이름 옆에 계부 표 시
	서자녀	적자녀와 동일	서자녀	적자녀와 동일
	외자녀	이름 상단에 ‘繼子’ 표 시	외자녀	이름 상단에 ‘繼子’ 표시 이름 하단에 생부 표시
외자녀 기재순서	출생 순		출생 순	
외자녀 기재범위	3대, 최대 5대까지 기재 가능		2대	

각 족보의 범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은 선조에 대한 정보의 구체화다. 을미보에 이르러서야 선조의 정보에 대해 자세한 기재 지침이 정해졌지만 이러한 기재 방식은 임오보 때부터 구성되었다. 그만큼 선조는 단순한 과거인물이 아닌, 그 자체로 후세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적이나 학맥 등 당장 성씨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 있는 사항부터 생졸년, 과환 등이 어느 개인의 인적사항에만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두 족보 모두가 동족집단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 선조의 공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범례는 을

미보에 이르러 상세해졌다. 계자의 기재표시가 변하거나 서자의 승적 표시가 생겨난 것, 친진과 계파의 등장이 그것이다. 어느 개인이 누구의 후손인지는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개별 동족집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두 족보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어느 개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적서자녀의 기재순서 변화가 그것이다. 남녀의 구분은 을미보에나 와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씨 여성은 여전히 서씨의 동족집단에 포함되는 존재였다. 대구 서씨는 분명 여성을 통한 가계계승을 동족집단의 일부로 꾸준히 포함시켜 왔다. 외손의 꾸준한 기재는 이것을 잘 말해준다. [표 2-1]에서도 드러나듯 서씨와 혼인으로 연결된 타성들에 대한 기재 범위는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동족집단의 기준에 여성과 그로 이어진 사위 및 외손도 포함됐던 것이다. 특히 타성의 기재 범위는 그가 어떤 가계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후대나 동족집단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조의 존재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Ⅲ. 족보의 구성원들과 동족집단의 형성

3.1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

족보는 사족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수록되는 인물들은 철저하게 수보자의 기준에 의해 가려졌다. 족보의 구성과 범례를 살펴본 결과 그러한 수보의 기준은 특정 선조를 중심으로 한 동족집단이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동족집단의 구성을 실제 인원들이 어떻게 이루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족보의 전체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서·발문과 범례에 따르면 대구서씨 족보에는 단지 ‘대구서씨’라는 성관을 가진 인물만 기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서씨 족보는 서씨 성을 가진 직계 자손들과 그 외의 타성을 가진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⁴⁸⁾ 직계의 경우 1대 徐開 이후 전해지지 않는 2~6대를 제외하고, 7대 徐益進, 8대 徐義까지는 1명의 인물만 기재 되었다. 이후 9대 부터 徐彌性和 서씨 여성 2명이 기재됨으로써 1명 이상의 서씨 인물들이 기재되기 시작했다.⁴⁹⁾

인원수를 살펴보면 임오보에서 대구서씨 성관을 가진 인물은 총 596명으로 남성 363명 여성 233명이며, 을미보는 남성 1,359명 여성 979명으로 총 2,339명이 기재되어 있다.⁵⁰⁾

48) 달성서씨의 경우 서·발문과 범례에 의해 두 족보에서 각 별보와 본보의 마지막에 실렸다. 이들은 1대 徐晉부터 시작하여 5대 서침까지는 1명의 인물만 기재가 되다가 이후 1명 이상을 기재하기 시작해 17대까지 기록해놓았다.

49) 대구서씨는 여타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시조에 대한 단선적인 기재가 있었지만, 간행 당시 고증이 불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서술 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준호는 특정 시조까지 1명의 인물만 기재되는 것은 해당 성씨의 상징적인 시조와 실질적인 시조가 따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구서씨 역시 마찬가지로인지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다. 송준호, (1986). “韓國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問題”. 『역사학보』, 109. ;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62.

타성의 경우는 서씨 인물과 혼인을 통해 기재된 자들로 모두 사위와 외손들이다. 이들은 서씨 여성이 족보에 나타나는 때부터 등장했다. [표 3-1]은 각 족보에서 대구서씨와 사위, 외손으로 이루어진 타성의 인원수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이때 을미보의 외증손 인원수는 범례의 기재세대 제한으로 인해 기재되지 못해 자료가 없다.⁵¹⁾

[표 3-1]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타성인원과 총 서씨인원수

족보	사위 수	외손 수	이하 외증손 수	타성인원 총합	서씨구성원 수
임오보 (1702)	231	398	1057	1686	596
을미보 (1775)	805	1384	-	2189	2339

*단위 : 명

임오보의 타성 기재는 세대를 기준으로 제한되었으나 무제한으로 기록되는 직계에 비해 그 총 인원수는 직계에 약 3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을미보의 범례에 의해 타성의 인원 기재는 더 제약을 받아 타성 구성원의 수는 직계를 앞지르지 못했지만 그 수는 서씨구성원의 수와 비등했다.

물론 전체 타성인원수와 대구서씨 인원수의 증가폭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임오보에서 을미보로 넘어오는 동안 전체 서씨 인원이 1,743명 증가했다면 타성은 503명 증가했다. 그러나 타성의 각 개별 항목별로 본다면 더 이상 기재하기 않기로 한 외증손을 제외하고 대구서씨 만큼이나 상당히 늘었다. 즉 대구서씨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성의 기재정도는 상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앞서 범례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서씨의 동족집단의 기준

50) 한편 달성서씨는 1702년 족보에 실려 있던 것을 그대로 1775년 족보에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들은 총 846명으로 남성 596명, 여성 250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상의 달성서씨에 대해서는 권기중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51) 조선 후기로 갈수록 타성의 기재 범위를 제한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이는 지면상의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족보의 발간이 극히 적은데다 기술하고자 하는 세대가 많지 않았지만, 조선후기에는 족보의 간행은 보편적이었으며 인구도 훨씬 많아진 상태였다. 따라서 사위와 외손을 통해 서씨 여성이 어느 가계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해당 성씨 족보에서 그 내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위의 가계를 직계만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권기석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사위 및 외손에 대한 정보로 대체한 것에 대해 이는 여성의 이름을 숨기려는 기존의 사회적인 의식이 작용했다고 보았다. 권기석. (2019). 앞의 논문. 49-50.

이 단순히 남녀기재 차이에 비롯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대구서씨의 인원 구성이다. 대구서씨는 세대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대구서씨 전체 인원을 세대별로 파악하고자 했다. 족보에서 ‘세대’는 가장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인물 분류기준이기 때문이다. 족보는 성별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세대에 따라 종적으로 인물들을 분류해 났다.⁵²⁾

[표 3-2]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세대별 인구 수

세대 족보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총합계
1702	1	1	3	7	4	13	17	17	19	40	113	182	149	29				595
1775	1	1	3	7	4	12	17	17	19	45	128	255	443	592	519	228	47	2338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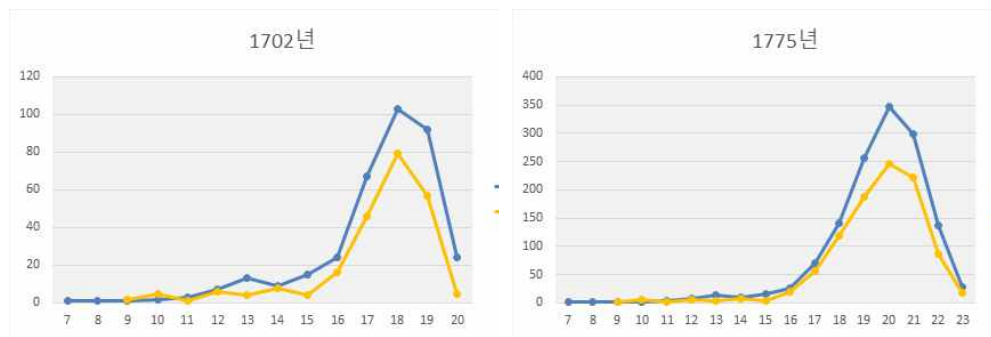
*음영이 칠해진 곳은 각 족보에서 당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세대임

[표 3-2]를 본다면 모든 세대에서 인원수가 증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존 구성원의 변동은 12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2대에서는 1명이 줄었으며 16대 이후부터는 인원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후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족보의 기재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족보의 기재기준에 변화가 생겨 동족집단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구서씨의 인원구성을 전부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살펴볼 것이 다음 [그림 3-1]이다. [그림 3-1]은 위의 인구수를 남녀로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족보에 기재된 서씨 인물들은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인다.

52) 이것은 기재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橫分五(六)階이다. 각 족보의 장은 1702년 때 6칸, 1775년 때 5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뉜 칸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별 인물을 기재해 그 상하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세대’는 족보에서 인물들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3-1]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세대별 서씨 남녀 인구 수



*단위 : 명

*그래프의 가로축은 세대를, 세로축은 인구수를 나타냄

*진한 색의 그래프는 남성의 인구수를 그보다 연한 색의 그래프는 여성의 인구수를 나타냄

전 시기에 걸쳐 남녀 인구수는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각 족보별로 19대, 21대에 들어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족보를 만들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세대는 인구 생산이 미처 다 이루어지지 않은 후세대였던 것이다. 또한 서씨 여성은 두 족보 모두에서 남성보다 인원수가 적었다. 세대별 성비 역시 일부 세대를 제외하곤 전 세대에 걸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⁵³⁾ 족보에 선별적으로 인물이 기재되었던 것이다.

그 선택적 기재의 기준점은 혼인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 혼인과 관련된 범례의 기재 지침은 임오보 때부터 꾸준히 제시되었다. 그중 여성의 기재는 직접적으로 혼인과 관련이 있었다. 때문에 임오보의 경우 전체의 99%가, 을미보의 경우 전체의 약 82%가 기혼여성이었다.⁵⁴⁾ 설령 기재기준의 변화가 있었다라도, 적어도 직계 여성의 경우는 족보 기재에 혼인여부라는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다. 이 기준에 미달한 여성들은 족보의 기재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따라서 실제 족보에 기재된 여성의 수는 남성에 비해 항상 적을 수밖에 없었다.

53) 임오보의 경우 전체세대 남성 100% 기준 여성은 평균 84.18%, 을미보의 경우 전체세대 남성 100% 기준 여성은 평균 85.28%의 비율을 보였다.

54) 임오보의 경우 전체 여성 233명중 단 2명만이 미혼상태로 기재되었으며, 을미보의 경우 전체 979명중 174명이 미혼상태로 기재되었다.

혼인여부는 가계의 번성과 관련이 있다. 자손 수의 증가는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서씨 여성들은 기재가 되었다. 혼인을 통해 자손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여성들, 혹은 혼인의 가능성이 있어 기재된 여성들이 선별되어 기록된 것이다. 서씨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직계 자손의 생산은 남성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1번 이상의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⁵⁵⁾

또한 혼인은 족보 속에서 가장 의도성이 짙은 관계였다. 이는 혼인이 가계 계승을 통한 동족집단의 구성과 맞닿아 있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지점이다. 사위와 외손들의 기재 사항만 보더라도 대구서씨는 가계의 구성원을 단순히 부계혈연의, 단선적인 인물들의 집합으로만 보지 않았다. 즉 혼인을 통해 연결되는 타성인물 역시 가계 계승 및 구성에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가계 구성에 있어 서자녀의 존재는 직계와 똑같이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서계는 족보기재 시 기재 범주나 방식이 직계와 차별을 두도록 했고,⁵⁶⁾ 대구서씨의 경우 직계에 비해 그 방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서자녀의 인원 구성은 적자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 족보 모두에서 서자가 서녀보다 많았다.⁵⁷⁾ 서계는 그 기재정도를 통해 직계와 구분이 지어졌지만, 직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재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표 3-2]와 [그림3-1]을 합쳐 보면 각 족보별 특정 세대의 인구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오보의 경우 17-19대가, 을미보의 경우 19-21대가 그러하다. 이들은 인구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세대의 바로 전 세대 이면서 전체 인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세대는 임오보의 경우 전체의 약 75%를, 을미보의 경우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해

55) 두 족보에서 기혼상태인 서씨 남성의 혼인 횟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혼인횟수	配	再配	三配	총합계
임오보(1702)	193	28	4	225
을미보(1775)	746	132	14	892

56) 권기석은 17세기로 넘어오며 서파나 향리가 사족족보에 기재되며 입록되는 범위는 넓어졌으나 그 내부에선 여러 기재방식에 의해 차별이 행해졌다고 했다. 대구서씨 족보역시 같은 서씨임에도 서계는 그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을 두었다. 권기석, (2010). “조선시대 족보(族譜)의 입록계층(入錄階層) 확대와 한계”. 『조선시대사학보』, 55.

57) 임오보에서 서자 100%기준 서녀는 평균 48.72%, 을미보에서는 서자 100%기준 서녀가 평균 68.62%를 차지했다. 직계와 마찬가지로 서자가 서녀보다 많이 기재되었던 것이다. (부표참조)

당 세대가 족보 간행 당시 대구서씨 내에서 주축이 되는 세대였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출생 시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족보에는 후손들이 선대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서씨 남성과 그 배우자의 생몰년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물론 모든 서씨 남성과 그 배우자들의 생몰년이 적혔던 것은 아니었다. 생몰년을 고증하지 못한다면 그를 적지 않았으며 제일 근래에 태어난 후세대의 경우엔 그조차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생몰년을 고증할 수 없다면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생몰년이 기록된 서씨남성은 을미보 기준 전체 남성의 약 80%를 차지해 기재되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세대의 출생 시기를 통해 족보가 간행될 당시 이들 세대의 나이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들은 그 출생 시기를 일정하게 나누어 정리했다. 한 세기를 00-33년, 34-66년, 67-99년으로 나누어 파악했으며 을미보 이후에 간행된 족보도 참고하였다. 비록 남성에 한에서만 생몰년을 파악했지만 해당세대의 대략적인 나이대를 아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표 3-3]임오보(1702)의 서씨 남성 출생 시기

시기 세대	14c 후	15c 초	15c 후	16c 초	16c 중	16c 후	17c 초	17c 중	17c 후	18c 초	총합 계
9	1										1
10		1									1
12			2								2
13				1	1						2
14					1						1
15					1	4	1				6
16						5	11	3	1		20
17						2	18	32	4		56
18							6	35	45	2	88
19								12	66	2	80
20									11	2	13
총합계	1	1	2	1	3	11	36	82	127	6	270

*단위 : 명

*음영부분은 해당 족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를 뜻함

*초반은 00-33년, 중반은 34-66년, 후반은 67-99년으로 나눔

[표 3-4]을미보(1775)의 서씨 남성 출생 시기

시기 세대	14c 후	15c 초	15c 후	16c 초	16c 중	16c 후	17c 초	17c 중	17c 후	18c 초	18c 중	18c 후	총합 계
9	1												1
10		1											1
12			2										2
13				1	1								2
14					1								1
15					1	4	1						6
16						5	11	3	1				20
17						2	18	33	4	2			59
18							6	35	55	17	4		117
19								12	76	102	29	2	221
20									20	123	143	12	298
21									1	43	164	24	232
22										8	61	19	88
23											18	5	23
총합계	1	1	2	1	3	11	36	83	157	295	419	62	1071

*단위 : 명

*음영부분은 해당 족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를 뜻함

*초반은 00-33년, 중반은 34-66년, 후반은 67-99년으로 나눔

[표 3-3]과 [표 3-4]을 보면 주요 세대로 파악했던 세대의 출생 시기는 각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족보가 간행되었던 년도인 1702년과 1775년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서씨 집단에서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세대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생존율을 살펴본다면 더욱 확실해진다. 출생년도가 확실하게 기재된 인물들을 기준으로, 임오보의 경우 17~19대의 평균 생존율이 75%, 을미보의 경우 19~21대의 평균 생존율이 64%였다. 두 족보 모두 당대 주요 세대의 과반 이상이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⁵⁸⁾

58)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출생년도 기록 소유자 기준 생존률과 전체 서씨남성 수(단위 : 명)

족보	세대	전체 남성 수	출생기재	몰년기재	생존률
임오보 (1702)	17	67	56	28	50%
	18	103	88	16	82%
	19	92	80	5	94%
을미보 (1775)	19	256	220	137	38%
	20	347	298	92	70%

족보의 중심 수보자인 서문중(17대)과 서명웅(19대) 역시 해당 세대에 속한다. 두 족보 모두 그 주요세대를 중심으로 수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주요세대는 가문의 번성과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족보의 제작은 물론, 과거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나갔다. 족보에 기재된 역대 과환을 살펴보면 이들 주요세대에 다수가 몰려있는 것이 확인된다. 족보별 과환을 살펴보면, 1702년 족보에서는 전체 67명 중 29명이(약 43%), 1775년 족보에서는 전체 181명 중 85명이(약 46%) 해당 세대에 속해 있다.

종합해보면 족보 속 대구서씨들은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컸으며, 당대 생존하여 활동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범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어느 개인이 특정 선조에 속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별로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느 가계에 구성원인가는 대구서씨 내부에서 서로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본격적인 가계의 출현은 파가 형성되는 15대부터였다. 따라서 15대의 인물들을 기준으로 그 후손들이 최대 몇 세대까지 기재되었으며 인원수가 어떤지 확인한 것이 아래 [표 3-5]이다.

[표 3-5]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가계별 기재 인원수

가계 족보	경진	경림	경빈	경수	경우	경적	경주	경치	유달	총합계
임오보 (1702)	8 (17)	1 (15)	51 (19)	224 (20)	20 (19)	2 (16)	110 (20)	88 (20)	16 (18)	520
을미보 (1775)	88 (21)	14 (19)	234 (22)	857 (23)	98 (23)	2 (16)	708 (23)	225 (23)	38 (19)	2264

*단위 : 명

*가로 안의 수는 해당 가계 내에서 기재된 인물들 중 제일 후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뜻 함

족보가 실제 인원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표 3-5]는 족보가 동족집단의 번성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 서·발문에서 가장 번성해졌다고 알려진 서성 이하의 아들들 가계는 실제 기재도 그러했다. 경빈, 경수, 경우, 경주가계는 인원수도 많고 가장 끝 세대까지 기재되었다.

	21	298	231	35	85%
--	----	-----	-----	----	-----

이러한 차별화는 기재정도를 비롯해 과거 합격자나 관직자 등 그 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에서도 차이가 났다. 특히 경수와 경주가계는 최대 기재세대와 인원수가 많았지만, 과거합격자나 관직자도 가장 많았다.⁵⁹⁾ 또한 이들 가계는 을미보를 수보하는데 주로 참여한 인물들이 속해있던 가계이기도 했다. 파의 형성과 발달이 동족집단 전체의 집단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도 있다고는 하나⁶⁰⁾, 결국 개별 가계 간 철저한 구분 역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수와 경주 가계에 비해 그 인원수는 적으나 최대 기재세대는 두 가계에 거의 인접한 가계들도 존재 했다. 대표적으로 경빈, 경치의 가계가 그러한데 이들은 서성의 후손들이 아니었지만 을미보에서 개별적인 파로 발전한 가계들이기도 했다. 한편 경적과 경림 가계는 어느 개별 파로 성장하지 못하고 족보 내에서 원파에 소속된 채 기재된 가계들이었다. 그런데 이중 경림 가계는 경적 가계에 비해 인원수가 더 증가하여 을미보에 실리기도 했다. 똑같이 개별 가계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경림 가계는 경적 가계에 비해 꾸준히 기재되기도 했다.

족보의 인원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여부였다. 혼인은 당대 가장 의도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로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였다. 때문에 족보에 기재된 대구서씨 인원은 대부분이 기혼자였으며 직계 자손 생산에 필요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족보에 기재된 인원 중 절반 이상이 당대 활동하던 주요세대로 임오보의 경우 17-19대, 을미보의 경우 19-21대가 여기에 속했다. 이들은 족보 간행 당시 생존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두 족보의 중심 수보자였던 서명응과 서문중 역시 각 족보의 해당 세대에 속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원수는 가계별로 차이가 났다. 가장 많이 기재된 가계는 서성 이하의 네 가계로 대구서씨 가계들 중 번성한 가계들이었다. 이중 특히 번성했던 경수와 경주가계는 족보의 수보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는 족보의 인구 구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을 넘어 범례의 목

59) 미야지마 히로시는 같은 서씨라 해도 경수와 경주가계에서 과거합격자나 관직을 지낸 인물의 수가 가장 많음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지배층은 특정 성씨의 특정 가계에서만 재생산 되며, 여기에는 왕실과의 혼인이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앞의 논문.

60) 최재석. (1981). 앞의 논문.

적대로 대구서씨 내부에서 가계별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3.2 향렬자의 사용과 그 범위

족보에서 가계마다 기재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같은 성씨라도 동족집단 간에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번에는 동족집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있었는지 향렬자를 통해 확인코자 한다.

족보의 내용 중 어느 개인을 명명한 이름은 족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 가장 압축적인 정보이자 족보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다. 이름을 이루고 있는 글자 중엔 향렬자가 있기 때문이다.

향렬자는 세대 간 상하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글자이다. 이를 통해 같은 성씨의 같은 동년배라고 해도 종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나이가 달라도 같은 향렬자를 쓸 경우 동일 세대라는 인식이 가능했다. 즉 향렬자를 통해 같은 성씨 집단임을 인지하면서도 세대별 상하구분이 가능했던 것이다.

향렬자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성씨별로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 범위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넓어지며 대향렬자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⁶¹⁾ 그러나 그 내부에서도 향렬자의 사용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⁶²⁾ 요컨대 점차 넓은 범위의 향렬자를 사용하면서 같은 집단임을 인지했으나, 그 고하의 질서나 범위를 지켜 끊임없이 동족집단 간에 구분을 이어온 모습도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입후에서도 드러난다.⁶³⁾

대구서씨 남성들의 향렬자 사용은 10대부터 시작됐다.⁶⁴⁾ 해당 세대의 인물인 서거정은 자신의 형 서거광과 함께居자를 향렬자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향렬자 공유는 점차 모든 서씨 남성이 향렬자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61) 최재석. (1983). “朝鮮時代의 門中의 形成”. 『한국학보』, 9(3), 9-12.

62) 달성서씨의 경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8촌 이상에서 향렬자를 공유하였지만, 8촌 사이에서 향렬자를 공유하는 집단은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권기중. (2010). 앞의 논문. 227-228.

63) 고민정. (2015).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향렬에 관한 연구”. 『泰東古典研究』, 34.

64) 대구서씨는 오행(金·水·木·火·土)을 포함하거나 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글자로 향렬자를 사용했다. 대구서씨의 대동 향렬자 사용은 세대별로 다음과 같다.

세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향렬자	居	彭	字	山+字	彳+字	景	履	文	宗	命	修	有	輔	淳

나아갔다. 임오보의 경우 전체 남성의 98%가 을미보의 경우 전체의 92%가 항렬자를 사용했다.⁶⁵⁾

이들의 세대별 항렬자 사용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6]과 [표 3-7]은 각각 임오보와 을미보에서 직계 남성이 항렬자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나타낸 표이다. 세로축은 세대 내 특정 인원들이 몇 촌 내에서 항렬자를 공유했는지 보여주며, 가로 안의 숫자는 해당 촌수에서 사용한 항렬자의 종류를 개수로 나타낸다. 한편 x는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표 3-6]의 16대 직계 남성들은 모두 21명이다. 이중 형제지간에서만 항렬자를 공유한 인원이 6명, 8촌간에 항렬자를 공유한 인원이 14명 그리고 항렬자를 사용치 않은 인물이 1명이라고 할 수 있다. 16대에서 사용한 항렬자는 총 3개로, 이중 2개는 2촌간에 공유한 6명이 사용했다. 즉 형제간에 항렬자를 공유한 6명은 다 같은 항렬자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2개의 항렬자를 각각의 동족집단 내에서 공유한 것이다. 아래 표를 통해 정확히 몇 명으로 이루어진 동족집단 내에서 항렬자를 공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세대가 최대 어느 촌수까지를 같은 동족집단으로 인식했으며, 몇 개의 동족집단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5) 임오보(1702)와 을미보(1775)의 항렬자 사용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족보 \ 인원	전체 인원	항렬자 사용 인원
임오보(1702)	362	355
을미보(1775)	1359	1253

[표 3-6]임오보(1702) 서씨 직계 간 항렬자 사용

세대 촌수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합계
2				2 (1)	2 (1)	2 (1)			2 (1)	6 (2)	5 (1)	2 (1)			21
4						5 (1)					11 (2)	9 (1)			25
6							10 (1)				37 (1)		16 (1)		63
8								7 (1)		14 (1)		75 (1)		17 (1)	113
10									13 (1)				75 (1)		88
12														7 (1)	7
x	1	1	1				1	1		1					6
총합 계	1	1	1	2	2	7	11	8	15	21	53	86	91	24	323

*가로 안의 숫자는 항렬자 개수를 나타냄 (단위 : 개)

*단위 : 명

*음영이 칠해진 세대는 가계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개명이 일어났던 세대를 뜻함

*“x”표시는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임

[표 3-7] 을미보(1775) 서씨 직계 간 항렬자 사용

세대 촌수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총 합계
2				2 (1)	2 (1)	2 (1)			2 (1)	8 (3)	5 (1)							21
4						5 (1)					8 (2)	13 (2)	5 (2)					31
6							10 (1)						16 (1)					26
8								7 (1)		14 (1)				16 (1)				37
10									13 (1)		42 (1)							55
12															13 (1)	23 (1)		36
14																	9 (1)	9
16																72 (1)		72
18												104 (1)					7 (1)	111
20													210 (1)					210
22														302 (1)				302
24															224 (1)			224
x	1	1	1				1	1		1				11	32	39	13	101
총합 계	1	1	1	2	2	7	11	8	15	23	56	117	231	329	269	134	29	1235

*가로 안의 숫자는 항렬자 개수를 나타냄 (단위 : 개)

*단위 : 명

*음영이 칠해진 세대는 가계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개명이 일어났던 세대를 뜻함

*“x”표시는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임

대구서씨 동족집단의 전체적인 경향은 임오보와 을미보에서 모두 분할과 결합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특히 [표 3-7] 을미보의 경우 18세기 후반에 나온 족보임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족임에도 동족집단의 유입과 방출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항렬자를 공유하는 동족집단이 나뉘지기 시작한 때는 12대부터였다. 12대 4촌간 항렬자를 공유한 5명은 외자로 항렬자를 썼으며 형제간 항렬자를 공유한 2명은 禎을 항렬자로 사용했다. 이들은 15세기 후반에 태어난 인물들로 즉 이때부터 특정 촌수 내에서만 항렬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정 촌수

가 넘어가면 향렬자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서 세대 내 분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심지어 같은 촌수라고 해도 서로 다른 향렬자를 사용했다. [표 3-6]에서 17대의 4촌간 향렬자를 공유했던 11명은 두 개의 향렬자를 사용했다. 11명 중 5명은 경진가계의 인물들로 이들은 서로 간에 遠을 향렬자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6명은 유달가계로 賢을 향렬자로 공유했다. 그 내부에서 또 다시 그들 스스로를 분류했던 것이다.

그러나 족보별 향렬자 사용 양상은 다른 면도 존재했다. 먼저 공유하는 촌수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을미보는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21대에서 향렬자 공유 범위가 최대 24촌까지 늘어났다. 인원의 상당수가 거의 남과 다를 바 없는 사이에서 향렬자를 공유했던 것이다.

형제간 향렬자 공유 정도도 마찬가지다. [표 3-6]에서 2촌 간에 향렬자를 사용한 인원은 21명으로 전체 인원의 6.5%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 향렬자 사용 사례 중 2촌 간 향렬자 공유는 총 8회로 가장 많으며, 18대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18대는 17세기 전반부터 18세기 초 사이에 태어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18세기 초에 다르도록 독자적인 향렬자를 사용한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을미보에서는 2촌간 향렬자 공유 사례가 19대부터 23대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기존 2촌간 향렬자 공유 사례가 없어지기도 했다. [표 3-6]에서는 18대의 2명이 徵이라는 향렬자를 공유 했었는데, [표 3-7]에서는 이 경우가 사라졌다. 형제간 향렬자 사용을 지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형제간에 徵자를 사용하던 인물들이 다른 향렬자를 사용하는 동족집단으로 유입된 것을 의미한다. 즉 동족집단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향렬자 사용 사례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 역시 달라졌다. 이러한 변동은 가계 형성이 이루어진 세대인 16-19대에서 나타났는데 이들 세대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세대이기도 했다. [표 3-6]와 [표 3-7]을 비교했을 때, 임오보에서 16대의 형제간 향렬자 사용은 立자와 勳자를 각각 2명 4명끼리 공유한 경우만 있었다. 그런데 을미보에서는 해당세대가 2명 늘었고 이들은 哲이라는 향렬자를 공유했다. 인원과 가짓수가 증가한 것이다. 17대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두 표를 비교했을 때 17대의 4촌간 향렬자 공유는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존인원 중 遠을 쓰던 5명이 10촌간 文자를 쓰는 동족집단으로 이동한 것과 德을 향렬자로 쓰는 2명이 새로 유입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 임오보에서 6촌간 文자를 쓰던 37명은 5명이 늘어나고 공유 범위까지 넓어져 10촌간에 향렬자를 공유하게 되었다. 18, 19대의 경우는 향렬자 사용 양상이 이에 비해 더 극적으로 바뀌었다. 18대의 경우 기존 8촌간 宗자를 공유하던 75명이 을미보에서 인원수가 증가하며 18촌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대의 경우 10촌간 命자를 공유하던 75명이 훨씬 늘어 210명이 20촌간에 향렬자를 공유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부터 기재된 인물들이 다른 향렬자 집단으로 이동하여 합쳐진 경우거나 새로 기재된 인물들이 다른 향렬자를 사용해 그들만의 동족집단을 만든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세대를 가계별로 나누어 향렬자 사용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는 앞서 말했듯 동족집단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자 그 안에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단위였다. 같은 친족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가 다름을 가계집단의 소속여부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계의 특성은 동족집단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표 3-8]임오보(1702) 가계별 16-19세대 직계 향렬자 사용양상

세대	촌수	경진	경빈	경수	경우	경주	경치	유달	총합계
16	2						2	4	6
	8	2	2	6	1	3			14
17	2						5		5
	4	5						6	11
	6		4	19	2	12			37
18	2							2	2
	4						9		9
	8		8	35	3	29			75
19	6						16		16
	10		7	51	3	14			75
총합계		7	21	111	9	58	32	12	250

*단위 : 명

[표3-9]을미보(1775) 가계별 16-19세대 직계 향렬자 사용양상

세대	촌수	경진	경빈	경수	경우	경주	경치	유달	총합계
16	2						2	4	6
	8	2	2	6	1	3			14
17	2						5		5
	4							6	6
	10	6	4	18	2	12			42
18	4						9		9
	18	12	10	36	6	33		7	104
19	6						16		16
	20	18	23	85	8	72		4	210
총합계		38	39	145	17	120	32	21	412

*단위 : 명

16-19대는 다수가 특정 향렬자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대이다. [표 3-8], [표 3-9]를 보면 모든 세대에서 특정 촌수 범위의 향렬자 공유 정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공유는 서성의 네 아들인 경빈, 경수, 경우, 경주 가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임오보의 跋文에서도 언급했듯 대구서씨를 본격적으로 발달시킨 가계는 서성 이하부터였다. 특히 해당 가계들의 16-19대 인물들을 살펴보면 경수가 계에는 영조의 장인인 徐宗悌, 나주목사와 도승지를 지낸 徐命珩이 있었으며, 경우가계에는 영의정을 역임하고 족보 간행에 참여한 徐文重이 있었다. 또한 경주가계엔 선조의 사위가 된 서경주부터 영의정을 지낸 徐命善, 규장각 첫 제학을 지내고 『保晩齋叢書』 등 다양한 저서를 남긴 徐命膺 등이 있었다.

반면 이들에 비해 독자적으로 향렬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2촌, 4촌 간 공유 사례를 살펴보면 위 가계들과는 다른 가계임이 확인된다. 이들은 경치, 유달 가계로 서성 이하의 가계에 비해 인원수가 적게 기재된 가계들이었다. 즉 어떠한 동족집단에 속해있느냐는 대향렬자의 사용여부나 기재범위 등을 결정 지었으며, 족보가 모든 인물들을 다 기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점은 하나의 향렬자가 대향렬자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회적 권위가 높았던 서성 이하의 가계들은 족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적혔으며 이는 곧 대구서씨 집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족보의 중심 수보자인 서문중과 서명응은 서성 이하 가계 출신이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동족집단이 족보의 간행에 중심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항렬자 역시 동족집단을 결집 및 구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표 3-8]을 보면 서성 이하의 네 가계만이 履(16대), 文(17대), 宗(18대), 命(19대) 항렬자를 서로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 3-9]로 오면 이 대항렬자의 사용 범위가 경진, 유달 가계로 확대되며 더 넓은 촌수 내에서 공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의 6촌간 文자 공유는 10촌간으로, 18대의 8촌간 宗자 공유는 18촌간으로, 19대의 10촌간 命자 공유는 20촌간 공유로 확대되었다. 대항렬자를 기반으로 한 동족집단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대항렬자를 공유하게 되었어도 기존에 항렬자를 사용하던 가계들과 공유하는 정도는 여전히 차이가 났다. 대표적으로 유달 가계는 18대부터 항렬자를 공유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당세대 내에서 대항렬자를 따르지 않은 가계도 존재한다. 경치가계는 訓練院奉事를 지낸 서경치를 시조로 둔 가계로 16대 道立 이하부터 가계가 발달했다. 경치가계는 독자적인 항렬자를 사용하다가 21대에 들어서야 대항렬자를 사용했다. 그런데 대항렬자 사용은 가계 전체가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대항렬자를 따른 경치가계의 인원은 19대 賀來의 손주 3명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동세대 13명은 가계 내의 항렬자를 사용했다. 또한 대항렬자 공유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항렬자를 공유한 3명 중 有欽의 아들은 다시 가계 내의 항렬자를 따랐다. 극히 일부가 기존 동족집단으로부터 이탈했다가 다시 합류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치가계의 기재정도는 서성 이하의 네 가계 만큼 비슷했다. 대항렬자를 추구하지 않을 만큼 대구서씨 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대항렬자를 사용하는 동족집단에 유입된 시기는 가계별로 달랐다. 유달가계는 서거정의 후손이자 인조반정에 참여해 좌리공신의 칭호를 받은 서유달을 중심으로 한 가계이다. 이들은 서유달을 포함해 가계 내에서만 항렬자를 사용하다가 18대에 들어 대항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대만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대항렬자 공유 진입은 경치가계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별 해당세대들의 출생 시기를 살펴보면, 유달

가계는 18세기 중반이었으며 경치가계의 경우 대항렬자를 사용한 21대의 3명이 모두 18세기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었다. 즉 가계별로 항렬자를 사용한 인원수는 현저히 차이나지만 이들의 항렬자 사용 시기는 경치가계가 더 빨랐던 것이다.

경진가계는 을미보로 넘어오며 19대부터 대항렬자를 따랐는데 이때 기존에 다른 항렬자를 사용하던 17대 역시 대항렬자를 따르게 되었다. 경진가계의 17대 인물들은 17세기 중반에 태어난 인물들로, 대항렬자를 공유하는 동족집단으로의 진입은 세 가계 중 가장 빨랐다. 이러한 동족집단으로의 진입은 족보의 기재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경진가계는 임오보에서 기재 인원이 8명에 그쳤지만 을미보에 이르러선 그에 비해 11배나 급격히 늘어났다.

다음은 임오보와 을미보에서 서계의 항렬자 사용 양상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는 방법은 [표 3-6], [표 3-7]과 동일하다.

[표 3-10]임오보(1702) 서계(庶系)간 항렬자 사용

세대 존수	11	13	14	16	17	18	19	총합계
2					2(1)	3(1)		5
6		2(1)			12(1)		1(1)	15
8			1(1)	3(1)		14(1)		18
x	1							1
총합계	1	2	1	3	14	17	1	39

*가로 안의 숫자는 항렬자 개수를 나타냄 (단위 : 개)

*단위 : 명

*음영이 칠해진 세대는 가계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개명이 일어났던 세대를 뜻함

*“x”표시는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임

[표 3-11]을미보(1775) 서계(庶系) 간 향렬자 사용

세대 촌수	11	13	14	16	17	18	19	20	21	22	총합계
2						3(1)					3
6		2(1)					1(1)				3
8			1(1)	3(1)				1(1)			5
10					15 (1)				5(1)		20
16										3(1)	3
18						21 (1)					21
20							24 (1)				24
22								17 (1)			17
24									22 (1)		22
x	1								2	2	5
총합계	1	2	1	3	15	24	24	18	29	5	123

*가로 안의 숫자는 향렬자 개수를 나타냄 (단위 : 개)

*단위 : 명

*음영이 칠해진 세대는 가계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개명이 일어났던 세대를 뜻함

*“x”표시는 향렬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임

서계는 두 족보에서 모두 직계보다 인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서계가 직계와 같은 향렬자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두 족보에서 모두 서계는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직계와 같은 촌수의 같은 향렬자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는 [표 3-10]의 14대나 19대의 서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8촌 6촌간에 향렬자를 공유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계와 마찬가지로 동족집단이 결합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다.

서계 또한 직계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향렬자 사용 양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의 경우 형제간 향렬자를 사용하던 사례가 사라지고 15명 모두가 하나의 향렬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임오보에 비해 동족집단의 결집이 더해진 것이다. 18대의 경우 임오보에서 8촌간 향렬자를 공유하던 14명은 인원이 7명이 더 늘어나 18촌간에 향렬자를 공유했다. 19대 역시 임오보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18대와 마찬가지로 6촌간 향렬자 공유사례는 그

대로지만 20촌간 항렬자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6-19세대의 서계 항렬자 사용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12]임오보(1702) 가계별 16-19세대 서계의 항렬자 사용양상

세대	촌수	경빈	경수	경우	경주	경치	유달	총합계
16	8		2	1				3
17	2	2						2
	6	2	5		5			12
18	2					3		3
	8		11		3			14
19	6					1		1
총합계		4	18	1	8	4	0	35

*단위 : 명

[표 3-13]임오보(1775) 가계별 16-19세대 서계의 항렬자 사용양상

세대	촌수	경빈	경수	경우	경주	경치	유달	총합계
16	8		2	1				3
17	10	4	5	1	5			15
18	2					3		3
	18	2	14		5			21
19	6					1		1
	20	3	11		9		1	24
총합계		9	32	2	19	4	1	67

*단위 : 명

대항렬자를 따르는 상당수는 서성 이하의 경빈, 경수, 경우, 경주 가계였다. 또한 경치 가계는 꾸준히 독자적인 항렬자를 사용하고 있다.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항렬자 사용 경향은 대체적으로 직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빈가계의 경우 다소 눈에 띄는 공유 사례가 존재한다. 경빈가계의 17대는 [표 3-12]에서 같은 세대라도 다른 항렬자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4명은 실제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형제지간이었다. 尙堅과 尙賢 그리고 文烜과 文燁은 같은 서자이면서 準履를 父로 두고 있었는데 형제간에 서로 다른 항렬자를 사용했다. 상견과 상현은 尙을, 문정과 문엽은 대항렬자인 文을 사용해 형제간에도 서로 다른 동족집단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상견과 상현은 이후 을미보에 이르러 文堅과 文燳로 개명하였다. 대항렬자를 사용해 같은 동족집단에 포함되었고, 이와 함께 공유하는 촌수도 더 늘어졌던 것이다.

경치가계의 18대의 2촌간 항렬자 공유 사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치가계는 가게 내에서만 항렬자를 사용했는데 서계는 직계와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치가계의 18대 직계 인원 9명은 行자를, 서계 인물 3명은 逸자를 항렬자로 사용했다. 즉 경치가계의 서계 항렬자 공유는 가게 간 구분과 가게 내에서의 적서 간 구분을 동시에 꾀했던 것이다. 이처럼 항렬자는 서계 내에서 동족집단의 구분과 적서간의 구분 두 가지 역할이 혼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름을 알 수 없거나 이름에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은 서씨 남성들이 을미보에 이르면 상당수가 확인된다. [표 3-6]부터 [표 3-13]까지 살펴보면 해당 남성들은 모두 후세대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대구서씨는 10대부터 항렬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의 남과 다름없는 사이에서까지 대구서씨가 동족집단의 분류와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만큼 이들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그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은 크게 이름에 항렬자가 없거나 이름 없이 성별로만 기재된 경우다. 항렬자가 없었던 10대 이전 인물 3명을 빼고, 서계와 직계 모두 합쳐 전자는 3명 후자는 100명이다. 이중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은 3명이 두 족보에서 얼마나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항렬자의 사용여부는 해당 가게의 기재정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항렬자 없이 이름을 지은 남성 3명은 각 13대 竹壽, 14대 興立, 16대 元亮으로, 이때 죽수와 흥립은 부자관계였다. 이들을 기준으로 그 후손이 최대 몇 대까지 기재되었는가를 살펴봤을 때 흥립 이후로는 19대까지 기재되었으며 원량의 경우 후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을미보가 최대 23대까지 기

재됐음을 감안한다면, 3명의 후손 기재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경진가계 인원수가 대항렬자 사용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항렬자를 따르지 않은 인물들과 그의 후손들은 그만큼 족보에 기재되는 것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항렬자를 따르지 않았어도 죽수와 흥립은 원량에 비해 후손들이 더 기재되었다. 임오보에서는 17대까지 14명, 을미보에서는 19대까지 23명이 기재되었는데 이 같은 꾸준한 기재에는 후손대에 이르러 가계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기재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다른 동족집단으로 유입된 것이다. 실제로 흥립 이후의 후손들은 종국에 대항렬자 집단에 속했는데 이들은 바로 유달가계였다.

[표 3-14] 유달 가계의 족보별 항렬자 사용양상

족보	촌수	세대(代)				총합계
		16	17	18	19	
임오보 (1702)	2	4		2		7
	4		6			6
을미보 (1775)	2	4				5
	4		6			6
	18			7		7
	20				5	5

*단위 : 명

**본 표의 인원들은 직계와 서계를 모두 합한 수이다.

유달가계는 독자적인 항렬자를 공유하다가 18대에 대항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가계였다. [표 3-14]를 보면 유달가계는 임오보에서 2명의 인물이 형제간에서만 항렬자를 사용했지만 을미보에 이르러서는 총 7명이 18촌간에 대항렬자를 따르기 시작했다. 형제간 항렬자를 공유하던 이들이 인원수 증가와 함께 항렬자를 바꾸며 더 큰 범위의 동족집단으로 들어간 것이다. 임오보에 기재됐던 유달가계의 世徵과 後徵은 항렬자를 포함해 宗郁과 宗彬으로 개명했다. 유달가계는 개명을 통해 공통된 선조의 범위를 넓히고 이로부터 족보에 정의된 동족집단에 편입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항렬자 공유는 적어도 유달가계에서 연달아 기재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명을 통해

공통된 선조의 범위를 넓혀 주류의 동족집단에 유입했던 것이다.

반면 성별로만 기재된 서씨 남성 100명은 전체의 7%로, 11대인 인물 1명을 제외하고 20대부터 23대에 걸쳐 전부 분포되어 있었다. 즉 당대 인구생산이 이뤄지고 있던 후세대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로는 성별 이외에 출생년도도 있으나 극히 일부 인원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신 동일세대의 출생시기를 확인하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사이로, 대부분이 족보가 간행되는 시기에 태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것은 나이가 아직 어려 그만큼 사망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항렬자의 사용여부는 족보의 기재와 큰 관련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항렬자를 따르는 것이 족보 기재에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항렬자 공유 양상을 개명과 관련지어 추적해보고자 한다. 항렬자 공유 양상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 증가 외에 그 일부가 항렬자를 변경하거나 새로 쓰기시작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명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름을 고치는 행위이다. 대구서씨 족보에서는 개명에 관한 정보를 따로 표기 하지 않았으며 범례에도 관련 언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임오보와 을미보를 대조하여 개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확인 방법은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정보 중 생년월일, 배우자의 정보와 직계 후손의 동일여부를 통해 그가 동일 인물인지를 판단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그조차도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동일인물인지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는 각기 다른 인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소수로 한정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6-19대에 주요 인구 변동 역시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세대가 가계형성과 밀접한 세대임을 고려했을 때 그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두 족보를 비교하여 개명여부가 확실한 인물은 17대에 7명 18대에 4명으로 총 11명이다. 이때 이들의 개명사례와 함께 항렬자 사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개명 전 이름인 본명은 임오보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15]을미보(1775)에서 개명한 인물들의 향렬자 공유 범위 변화

세대	소속가계	본명	본명시 향렬자 공유범위	개명	개명시 향렬자 공유범위
17	경빈	尙堅(서)	2촌	文堅(서)	10촌
		尙賢(서)		文燾(서)	
	경진	遠攀	4촌	文班	
		尙遠		文鐸	
		起遠		文鍵	
		美遠		文欽	
		致遠		文鈺	
18	경빈	宗敬	8촌	宗殷	18촌
	경주	宗極		宗杓	
	유달	世徵	2촌	宗郁	
		後徵		宗彬	

*본명의 기준은 1702년 족보를 기준으로 함

**위 표의 (서)는 서자를 표시한 것임

전체 11개의 개명사례 중 향렬자만 바꾼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향렬자를 바꿈과 동시에 다른 이름자도 바꾼 경우가 다수였다. 이중 향렬자는 17대의 경우 기존 향렬자에서 文으로, 18대는 宗으로 바꾸었는데 文과 宗은 모두 서성 이하의 가계들이 사용하던 대향렬자였다. 대향렬자를 따름으로써 서성 이하의 가계들과 같은 동족집단에 포함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향렬자를 포함하여 개명한 사례들은 한 가계 안의 형제들이 모두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향렬자가 아닌 다른 이름자만 고친 경우도 있었는데 18대에 종경과 종극이 유일했다. 그들은 기존의 향렬자는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이름자만 바꾸어 종은와 종표가 되었다. 이러한 개명사례는 여타의 이유 때문에 이름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며,⁶⁶⁾ 향렬자를 포함해 개명한 경우와는 다르게 같은 형제들 중 해당 인물만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종경은 경빈, 종극은 경주가계 출신으로 원래부터 대향렬자를 쓰는 가계의 인물들이었다.

66) 개명은 왕족이나 자신이 속한 집안의 선대와 같은 이름자를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때 개명 절차는 관직자를 중심으로 그 절차가 엄격했으며, 그 외 나머지 일반인들은 개명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한이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란. (2017). “조선후기 개명의 증가와 그 사회적 의미”. 『역사와실학』, 64.

개명 전 이들의 향렬자 공유 범위를 살펴보면 17대에서는 형제간 그리고 사촌 간에 향렬자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18대의 경우 각각 형제간과 8촌간에 향렬자를 공유하고 있었다. 임오보에서 17, 18대 다수가 각 6촌, 8촌간에 대향렬자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이 향렬자를 바꾸어 개명한 후, 대향렬자 공유 범위는 10촌, 18촌으로 넓어졌다.

공유 범위의 확대는 대향렬자의 공유 범위와 일치한다는 데서 중요하다. 향렬자를 포함한 개명의 목적은 개명을 한 상당수의 인원들이 기존에 대향렬자를 공유하던 가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7대의 경우 遠자를 향렬자로 쓰던 5명이 경진가게였으며 18대의 경우 형제간 향렬자를 사용하던 2명은 유달가게의 세징과 후징이었다.

이것은 향렬자를 고치지 않은 종경와 종극의 향렬자 공유 범위가 증가한 것을 설명해준다. 다른 동족집단으로 여겼던 유달 가게의 인물들이 서성 이하의 가게들과 같은 동족집단으로 유입이 됐고, 이 때문에 기존 향렬자를 사용하던 이들의 공유 범위 역시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가장 영향력이 높은 동족집단이더라도 꾸준히 기재되기 위한 조건을 끊임없이 갖추어야 했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경빈가게가 그러하다. 경빈가게는 서성 이하의 가게 중 하나로, 대향렬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족집단에 속해있었다. 그런데도 서자인 상견과 상현은 이후 문견과 문희로 개명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서씨 내부에서 이루어진 개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향렬자가 아닌 단순히 이름자를 고치는 것으로, 이는 동족집단의 결집 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행위였다. 나머지 하나는 최소 2명 이상의 형제간 집단적 행위로, 향렬자를 고쳐 주요 동족집단에 포함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행위였다. 같은 주요 동족집단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 연속해서 족보에 기록되고자 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족보의 인물기록은 수보자가 범례에서 드러낸 의도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렬자는 그러한 수보자의 목적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잘 보여주었다. 향렬자는 일차적으로 세대 간 구분에 목적이 있었지만 동일 세대

간 구분에도 활용되었다. 즉 동일 세대 간이라도 일정 촌수가 넘어가면 다른
항렬자를 사용해 동성동본이라도 타인이라 인식했던 것이다.

항렬자를 기준으로 나눈 동족집단은 끊임없이 나뉘지다가도 합쳐지는 유
연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족보를 제작하는 당시 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졌
던 거 같다. 그러나 대구서씨 내부에서 주요 동족집단은 서성 이하의 네 가계
들로 항상 같았다. 족보에 기재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해당 가계이거나 그
가계들에 속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그들 네 가계가 사용하던 항렬자는 대동항렬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족보가 사회적 권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그를 나타내주는
존재가 서성 이하의 가계들이기 때문이었다. 실제 서성 이하의 가계들은 전체
대구서씨 집단에서 가장 많은 과거 합격자와 관직자를 갖고 있었으며 왕실과
혼인관계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족보에 기재되기 위한 꾸준한 노
력이 필요했다. 그만큼 족보는 당대 대구서씨가 마주한 사회적 상황을 잘 나
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 전시기에 걸쳐 대구서씨는 중앙정부에서 끊임없이 활동해온 성씨로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어왔다. 본고는 18세기에 간행된 대구서씨 족보의 기재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구서씨에게 있어 족보의 수보란 어떤 의미였는지 검토해 보았다.

대구서씨 족보는 18세기 초 170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수보자들은 임오보의 발문과 부록을 통해 동족인 대구서씨를 시조 서한의 후손들(전객공파)로 한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임오보에서 판도공파인 달성서씨는 별보로 간주되었고, 대구서씨만이 본보에 실렸다. 후에 1775년 을미보에는 달성서씨가 본보에 들어가긴 했으나 증원 없이 임오보의 인원이 그대로 기재되었다. 대구서씨는 여전히 달성서씨를 동족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신들과 별개의 존재로 간주했던 것이다.

족보의 간행과정은 두 족보의 수보 목적과 방향을 더 자세히 드러냈다. 중심 수보자들이나 수보하는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서성 이하의 네 가계 그 중에서도 경수와 경주가계였다. 가장 번성했다고 일컬어지며 대구서씨를 대표하는 가계들이 중심이 되어 족보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범례는 족보의 기재 지침으로, 두 족보를 모두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은 선조의 존재였다. 훌륭한 행적과 학풍을 가진 선조는 그 자체로 대구서씨를 대표하며 후손들을 하나의 동족집단으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존재였다. 과거는 물론 족보가 간행되던 당시와 그 이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던 것이다. 때문에 두 범례 모두에서 선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졌고 드러내는 방식은 점차 상세해졌다.

두 족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녀에 대한 구분이었다. 임오보와 비교했을 때 을미보의 가장 큰 특징은 선남후녀 순의 기재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서씨 여성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로 이어지는 외손과 사위

에 대한 꾸준한 기재는 이를 잘 말해준다. 외손 및 사위에 대해 차등은 두었지만 이들을 가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형식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구서씨가 추구한 동족집단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족보의 구성원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으며, 족보 간행당시 주로 활동하며 족보 간행에 영향을 끼쳤던 세대였다. 또한 이들은 절반 이상이 서성 이하의 네 가계 인물들이었다. 최대 기재 세대 역시 일곱 가계 중 이들 네 가계가 다른 가계들에 비해 제일 후세대까지 기재되었다. 이러한 기재 양상은 족보가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대구서씨 족보임에도 여성으로 이어지는 외손과 사위의 인원수는 대구서씨 전체 인원수보다 많았다. 이는 앞서 범례에서 보았듯 여성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을 대구서씨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항렬자는 특정 가계와 세대별로 구성된 인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해 주었다. 각 족보에서 세대별 항렬자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항렬자는 단순히 세대 간 구분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항렬자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동족집단 간에 구분을 지어주는 기준점 역할을 했다. 또한 그 종류나 공유 범위는 적서 간에 따라 꼭 달라지지도 않았고 시간에 따라 증가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대구서씨 안에서 형성된 동족집단이 유동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오보와 을미보에서 가장 중심적인 동족집단은 모두 서성 이하의 네 가계였다. 이것은 두 족보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항렬자가 서성 이하의 네 가계가 사용한 항렬자이며, 후에 대항렬자로 바뀌는 데서 설명될 수 있다. 족보의 기재 목적은 대구서씨의 사회적 권위와 밀접한 상관이 있었고 이들 네 가계 중 특히 경수와 경주 가계는 대구서씨의 그러한 권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종류의 동족집단이었다. 때문에 이들 네 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가능한 많은 인원이 기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네 가계만 큼이나 기재된 가계로는 경치가계가 있었다. 경치가계는 대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가계 내에서만 항렬자를 공유했음에도 서성 이하의 가계들만큼이나 기재되었다. 이는 가계별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을미보는 임오보에 비해서 동족집단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향렬자의 공유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서성 이하의 네 가계 외에 같은 향렬자를 공유하기 시작한 가계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족집단의 결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새로 유입된 가계들의 향렬자 공유 정도는 이들 네 가계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전히 기재정도도 마찬가지였다.

개명은 서성 이하의 네 가계와 같은 향렬자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다. 개명은 대향렬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자신의 향렬자와 이름을 고치며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향렬자를 이용해 개명함으로써 공통으로 공유하는 선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족보에 계속 기재될 수 있는 명분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을미보의 대향렬자 공유 범위가 남과 다를 바 없는 24촌까지 확대된 것은 이 때문이였다.

그러나 두 족보만으로는 당대 대구서씨의 모습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시대에 따른 이들의 대처방식은 좀 더 많은 대구서씨 족보들을 분석해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일의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702). 『大丘徐氏世譜』
- (1775). 『大丘徐氏世譜』
- (2003). 『大丘徐氏世譜』
- (1755). 『達城徐氏族譜』
- (2016). 『대구서씨문헌록』. 대구서씨대중회.
- 고민정. (2015).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향렬에 관한 연구. 『泰東古典研究』, 34.
- 권기석. (2007). 15~17세기 族譜의 編制 방식과 성격 : 序·跋文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규장각』, 30.
- _____. (2010). “15~17세기 族譜 간행과 참여계층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조선시대 族譜의 入錄階層 확대와 한계. 『조선시대사학보』, 55.
- _____. (2019). 조선시대 족보의 女性 등재 방식 변화-여성의 夫家 귀속과 다원적 계보의식의 축소-. 『조선시대사학보』, 90.
- _____. (2020). 조선후기 족보 入錄의 정치·사회적 의미 -족보가 갖는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의 兩面性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2.
- 권기중. (2010). 조선후기 족보의 인적 구성과 특징 : 『達城徐氏族譜(1769)』를 중심으로. 『사림』, 43.
- _____. (2013). 조선후기 호적을 통해 본 계보와 사회적 네트워크; 족보와 호적을 통해 본 조선후기 대구지역 달성 서씨의 계층성. 『대동문화연구』, 83.
- _____. (2014). 달성 서씨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신분변화의 장기 추세와 그 의미. 『한국문화』, 67.
- 김경란. (2017). 조선후기 개명의 증가와 그 사회적 의미. 『역사와실학』, 64.
- 김문택. (2005). 16~17C 안동 진성이씨가의 族契와 門中조직의 형성과정. 『조선시대사학보』, 32.
- 김봉곤. (2013). 智異山圈(南原)土族 朔寧崔氏 家系記錄과 通婚圈. 『고문서연구』, 42.
- 김필동. (2009).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 파평윤씨 魯宗派의 사례. 『사회과학연

구』, 20(3).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비교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구. 『한국사학보』, 32.

_____. (2008).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62.

백광렬. (2017). 조선후기 지배엘리트 ‘친족연결망’(Kinship Network)의 개념과 분석 방법. 『사회와역사』, 114.

손병규. (2012). 족보에서 보는 왕실과의 혼인 기록과 계보 형태. 『장서각』, 27.

송준호. (1980).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역사학보』, 87.

_____. (1986). 韓國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問題. 『역사학보』, 109.

이상국. (2010). 『안동권씨성화보』에 기록된 이제현 가계 사람들. 『사림』, 35.

이창기. (2010).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 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46.

이해준. (1993).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 23.

정승모 (2006).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 방식, 『역사민속학』, 23.

차장섭. (2010).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역사교육논집』, 44.

최재석. (1968). 동족 집단조직체의 형성에 관한 고찰-온양방씨와 대구서씨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

_____.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역사학보』, 81.

_____. (1981). 族譜에 있어서의 派의 形成. 『민족문화』, 7.

_____. (1983). 朝鮮時代의 門中の 形成. 『한국학보』, 9(3).

한상우. (2013).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1.

_____. (2014). “조선후기 양반층의 친족 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ation Patterns and
Meanings of the Late of Joseon Dynasty
Genealogical Table
-Focusing on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Daegu Seo Family』 -

Yu, Suji

Major 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1702 and 1775, Daegu Seo family published "Genealogical Table of Daegu Seo Family." This study tried to confirm what the genealogical table was like for Daegu Seo family through the style of the two genealogical tabl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genealogical table was a recor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inciples. Among them,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understood to represent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in the form of a strong cohesion of the paternal line compared to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recently, the genealogical table has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based on the fact that it was a tool to upgrade or

maintain the social authority of the Sajok(士族). The study also looked at the genealogical table of Daegu Seo family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rends.

Both genealogical tables were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but in different forms and composition. In 1702, the first genealogical table(Imobo), was relativ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late Joseon Dynasty. Rather, The genealogical table of Daegu Seo family in 1775(Eulmibo) was close to the general genealogical tab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although these formal differences existed, the nature of the lineage group did not change. The compilation of Daegu Seo's genealogical table was aimed at revealing their social authority and elevating it.

The intentions of Seomun·Balmun(序·跋文) and Beomrye(凡例) were applied to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of the actual genealogical table. Dalseong seo, who was considered to be a relative of the same family, was published as a separate report in Imobo and later published in the main book(本譜).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the article was still different.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was made in Eulmibo, but the records of sons-in-law and grandchildren was still considerable.

Many of them were from four families below Seo-seong, and they were the most prosperous among the Daegu Seo family. In the two genealogical tables, these four families were on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heir family and the criterion listed in the genealogical table. In Imobo, only these four families used the same generation name, but in Eulmibo, other families, including them, used the same generation name.

The generation name was changed through a change of name, which was a common act between brothers. In order to continue to be listed in

the genealogical table, some Seo wanted to change the generation name and enter the lineage group. However, even if they were included in the same lineage group, the distinction between families still existed. Even if it was already included in the lineage group, the same generation name had to be used to be consistently listed in the genealogical table. As such, the genealogical table was not just a family record, but rather a historical record reflecting the society faced by Daegu Seo Family of the time.